



www.korean.go.kr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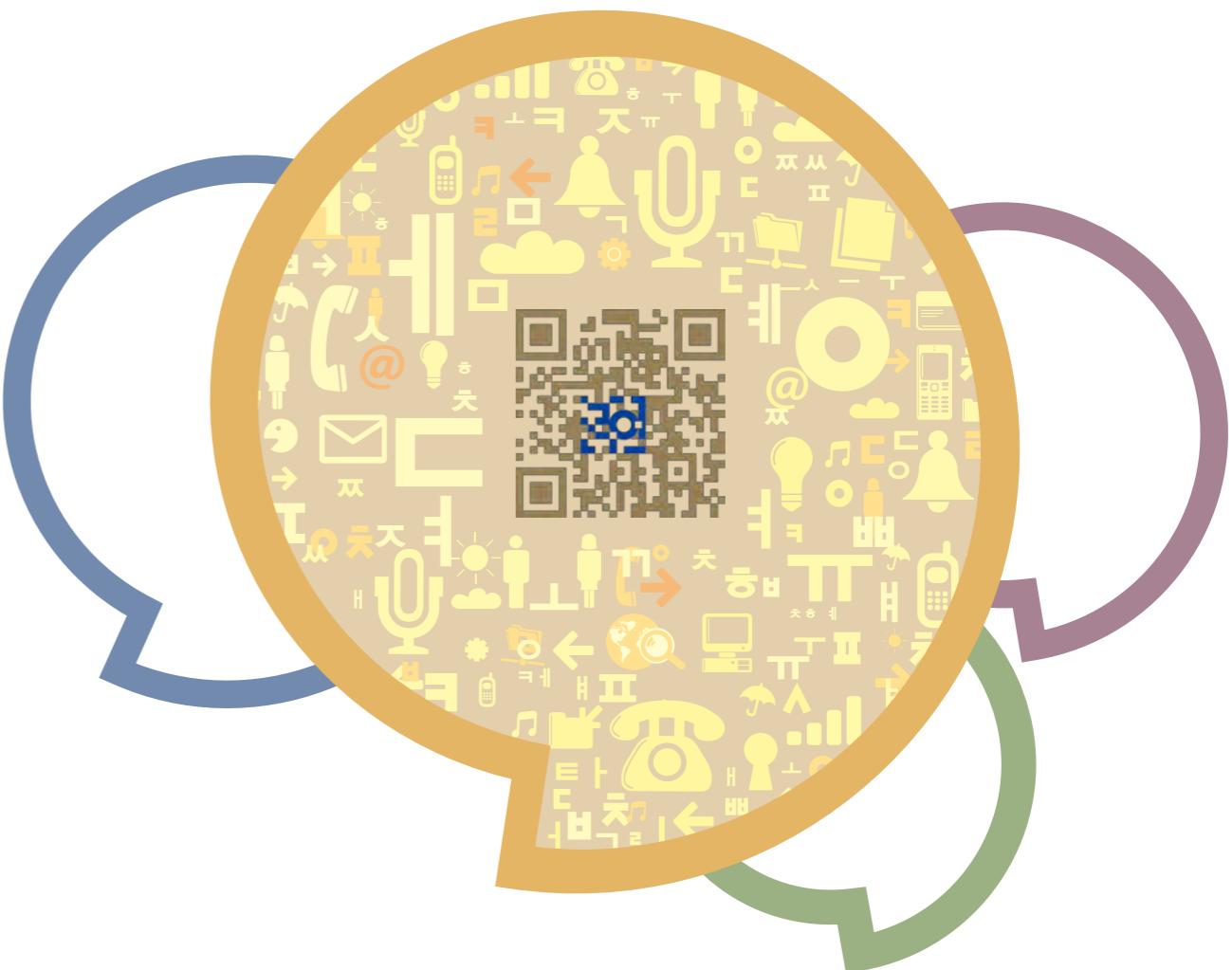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32-01

국립국어원 2012-01-49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머리말

오늘날 한국어는 세계인이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상황을 보면 잘못된 한국어 사용, 외국어 남용, 언어폭력 등으로 한국어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언어폭력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평균 20어절에 한 번꼴로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언어폭력은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므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청소년의 언어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언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청소년 유관 시설, 단체 등에서 청소년들의 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절실하게 제기되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용 교육·지도 프로그램을 구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먼저 전국 청소년 수련관 12곳을 방문하여 수요자 조사 및 언어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방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차례에 걸쳐 청소년 전문가와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들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지난 11월에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협조 하에 판교초등학교, 백현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 개선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 현장 상황에 맞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은 언어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고, 자급한 언어 사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스스로 확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언어에 관심을 갖고 개선 활동을 계획하시는 각급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선생님들께 현장지도 지침으로 충분히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국립국어원

원장



서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제1장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용

- 09 세종대왕님의 창 (1차시)
- 13 말하는 대로 (2차시)
- 18 움직이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3차시)
- 24 마음에 남기는 말 (4차시)
- 30 함께 그리기 (5차시)
- 34 어떤 꽃이 자라날까요? (6차시)

제2장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초등 고학년용

- 41 말 놀이터 (1차시)
- 46 고운 입, 미운 말 (2차시)
- 51 무지갯빛 우리말 놀이 (3차시)
- 55 버리는 말 (4차시)
- 59 거울아 거울아 (5차시)
- 62 나는 비른 말 작사가 (6차시)

제3장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중학생용

- 69 나의 언어 습관 점검하기 (1차시)
- 75 어휘력 알아보기 (2차시)
- 79 옥 어원 알아보기 (3차시)
- 83 말에 울고 웃고 (4차시)
- 87 내 안의 어두움 내보내기 (5차시)
- 90 말하는 대로 (6차시)
- 94 옥을 물리치는 광고 노래 (7차시)
- 97 광고 포스터 만들기 및 다짐 (8차시)

제4장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고등학생용

- 103 우리의 언어 습관 왜 문제일까? (1차시)
- 108 소통이 왜 어려울까? (2차시)
- 114 어떤 말을 해야 하나? (3차시)
- 117 뜻을 알리자! (4차시)
- 123 고운 말 닦싸움 (5차시)
- 127 영화 바꿔보기 (6차시)
- 131 예쁜 말 베개 만들기 (7차시)
- 135 다섯 손가락 다짐 만들기 (8차시)

부록
언론에 소개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

비속어, 은어, 욕설 등 청소년의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은 폭력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폭력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 모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져 청소년의 만연된 욕설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2011)'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중 6명, 중·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욕설이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97%, 중·고등학생은 99%에 달했다. 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도 청소년 언어 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은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관 시설, 단체에서도 시행될 필요가 있어 국립국어원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용 청소년 언어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먼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은 '욕설 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김평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참고로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한 단위 학교 학생 및 국어교사들의 협력에 의해 진행된 연구로 세 가지 욕설 교육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욕설 교육 프로그램인 '태도 교육법'과 토론·논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 교육법'은 단순히 금연 운동과 같이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계몽, 캠페인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교육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에 반해 학생 스스로 자료, 정보, 지식을 생성해내는 '프로젝트 수행법'은 자발적이고 장기 몰입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첫째, 언어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습관화된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언어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폭력적 성향이 강한 욕설과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으로 청소년의 감정 및 의사 표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관련 지식, 표현력, 언어 능력 등을 활동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서적 측면에서 청소년 스스로 분노 및 충동성, 감정표현 능력 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청소년이 어떠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폭력적인 언어 표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가 언어 진단,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각자의 언어 습관을 확인해 보는 활동을 프로그램에 삽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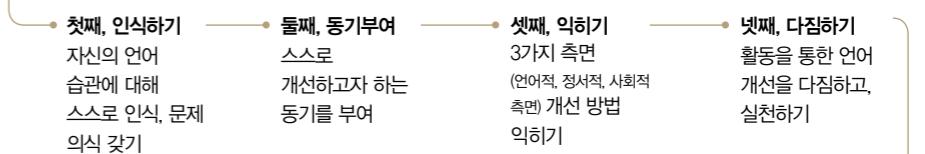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배우고, 저급한 언어 사용이 개인의 품위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성까지 저하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였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지표가 되는 언어 표현을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각 발달 시기에 맞춰 개발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욕설 사용을 개선하기보다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처음 욕을 접하고 사용하는 시기이므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미 습관화된 욕설에 대해 인식하고 집단 활동을 통해 개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욕설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됨으로써 일상화된 욕설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의 움직임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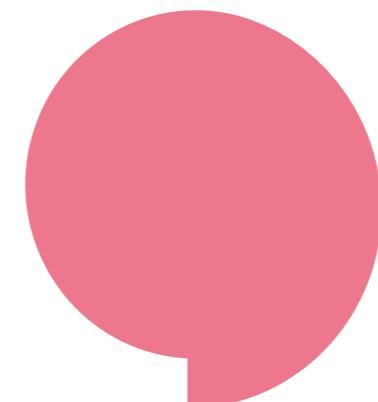
각 교급별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올바른 청소년 언어문화를 스스로 기꿈.

01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초등학교 저학년용

- 09 세종대왕님의 창 (1차시)
- 13 말하는 대로 (2차시)
- 18 움직이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3차시)
- 24 마음에 남기는 말 (4차시)
- 30 함께 그리기 (5차시)
- 34 어떤 꽃이 자라날까요? (6차시)



**차시별
프로그램 구성**

차 시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1	흥미 유발	세종대왕님의 창	우리의 전통 칭호지 문에서 한글 '자음-모음'의 형태 찾아보기
2	동기 유발	말하는 대로	표정을 보고 감정을 알아맞히고 언어로 표현한 후, 이 언어들을 통해 앞으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자화상 그려보기
3	언어적 측면	움직이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림과 문장에 알맞게 다양한 우리말 표현(의성어/의태어)을 사용하여 맞혀보기
4	정서적 측면	마음에 남기는 말	좋은 말(긍정적 정서)과 나쁜 말(부정적 정서)을 빙고게임으로 표현해보고, 부정적 언어들을 긍정적 언어로 정화시켜보기
5	사회적 측면	함께 그리기	그림 설명을 듣고 그리기 활동을 통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대적인 입장에 대해 이해해보기
6	마무리	어떤 꽃이 자라날까요?	언어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 자료를 보고 화분 만들기(자신이 선택한 꽃씨와 가장 좋아하는 말 함께 심기)활동을 통해 아름답게 말하기에 대한 가치 내면화하기

 **총 6차시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 기본적으로 1차시에 자기소개 – 모둠 만들기
각 차시를 각각 사용할 경우 : 활동 초반에 자기소개 – 모둠 만들기 필수적으로 포함.

활동 목표

- 한글의 형태를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 한글에 대한 친숙함과 자긍심을 높인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저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시각 자료(옛 칭호지문 사진 · *활동 자료에 첨부), 세종대왕 가면, 7 X 7칸 자음 모음 활동지(*활동 자료에 첨부), 형광펜, 색연필(세트), 초시계 자음-모음 찾기 활동지 (*활동 자료에 첨부)

주요 내용

- 칭호지 문에서 우리 '한글' 자음-모음의 형태 찾기
- 언어 사용 습관 되돌아보기 및 앞으로의 언어 사용 다짐하기

유의 사항

- 지도 교사는 사전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업적에 대한 지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어 참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 연령적 특성에 맞게 보상(물)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 분	시간	비 고
도입	활동 소개	10분	모둠 만들기
전개	칭호지 문을 형상화한 활동지에 자음·모음을 찾아내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발표하기	2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10분	

도입 10 분

전개 20 분

세종대왕님의 창
1차시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을 소개하고 모둠을 청한다.
- 진행방법

 - 최대 6명씩 5~6개 모둠을 편성한다.
 - 모둠 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모둠 이름을 정하도록 한다.
 -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글을 만든 분은 누구죠? 그렇죠. 세종대왕님이시죠? 그러면 훌륭한 우리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한글을 만들게 되었을까요?(아이들의 다양한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럼 우리들도 옛날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찾고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특히 인체의 일부분인 구강구조를 본떠 한글을 만드셨다고 하니 너무나 신기하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물 중에서도 ‘우리의 전통 창호지 문’을 사용해서 한글을 찾는 재미있는 경험을 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들도 조선시대의 세종대왕님이 되어 봅시다.

- 모둠의 장에게 찾아낸 자음 – 모음을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개수를 세도록 한다(중복된 자음 – 모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되, 가장 많이 찾은 팀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을 제시).
- 모둠별로 세종대왕 가면을 쓴 모둠 대표가 나와 칠판에 붙여진 활동지를 보며 몇 개를 찾았는지 자유롭게 발표하고 완성한 활동지를 정리한다.
- 준비물 : 시각 자료(옛 창호지 문 사진, *활동 자료에 첨부), 세종대왕 가면 1개, 7×7 칸이 그려진 활동지(모둠별로 1장씩), 색연필, 초시계
- 유의사항
 - 자음 찾기가 끝나면 모음 찾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도 교사가 먼저 예시를 들어 보여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기를 유도한다.

세종대왕께서는 어느 날 궁궐을 거니시다 창을 보고 한글을 만들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집이나 학교에 있는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쇠, 철, 유리 등)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로 문을 만들어요. 그런데 옛날 세종대왕께서 사셨던 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이런(창호지 문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창호지를 사용해서 문을 만들었어요. 자, 모양이 어때요?(학생들 대답함) 그렇죠. 네모도 있고 문고리는 동그라미 모양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세종대왕이 돼서 한 번 ‘ㄱ’을 찾아볼게요(손가락으로 사진에서 ‘ㄱ’의 형태를 찾아 그려 제시한다. 그리고 모둠별로 활동지를 나누어 준다). 선생님처럼 이제부터 각 모둠별로 세종대왕이 되어 봅시다. 선이 겹치지 않게 그 안에 숨어 있는 자음(모음)을 찾아서 발표할 거예요. 준비, 시작!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진행방법

- 각자 활동에 대한 느낌과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
- 지도 교사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여 말한다.

정리 10 분

- 내용 : 창호지 문을 형상화한 활동지에 자음 – 모음을 찾아내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발표하기
- 진행방법
 - 지도 교사는 제시된 시각 자료(실제 창호지 문 사진)에 자음 – 모음의 형태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려 예시로 나타낸다.
 - 모둠별로 창호지 문을 형상화한 7×7 칸이 그려진 활동지를 1장씩 색연필(세트), 형광펜 등과 함께 나누어 준다.
 - 창호지 문의 선이 겹치지 않도록 자음 – 모음을 찾아내는 것을 강조하며, 신호에 따라 동시에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제한 시간 – 10분 이내).

정리 10분

 모두 멋진 발표였어요.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는 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함) 맞아요. 세종대왕님은 가난한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글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세종대왕님에 대한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것 외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들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세종대왕님의 마음이 담긴 한글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담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봤으면 하는 거였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위대한 세종대왕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기 전에 한번쯤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의 창을 열어 둘 거예요? 닫아 둘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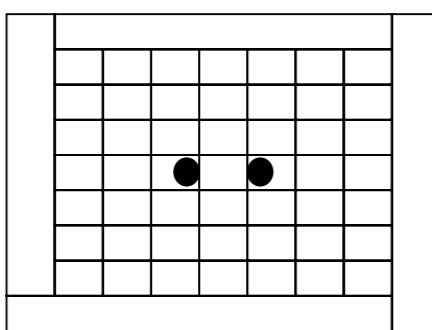
활동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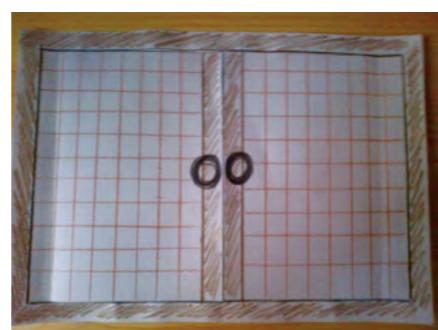
도입 · 옛 창호지 문 사진



전개 · 세종대왕 가면(확대복사 사용)



7x7 칸 자음 - 모음 활동지 예시



활동 목표

-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 말하기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저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외 보조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얼굴 표정(화난/웃는)이 그려진 활동지(*활동 자료에 첨부), 접착 종이, 필기도구, 도화지, 크레파스나 색연필

주요 내용

- 말하기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느껴보고 언어로 표현해 보기
- 상반된 언어 표현을 보고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보기(내가 원하는 모습)

유의 사항

- 본 활동에서는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아가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미래 모습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해 보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도 교사는 자화상을 그릴 때, 참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알맞은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 과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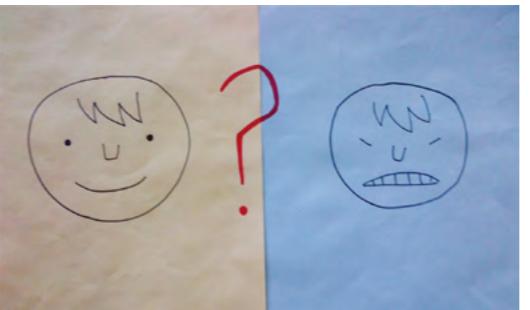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표정보고 감정 알아맞히고 언어로 표현하기	10분	준비활동
전개	표현된 언어를 보고 자화상을 그리기	20분	
정리	발표 및 활동 내용 정리	10분	

말하는 대로 2차시

도입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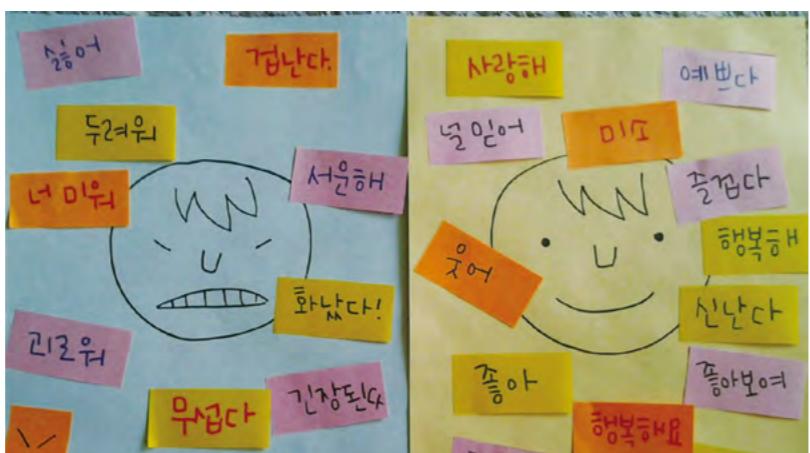
활동 내용

- 내 용 : 표정 보고 감정 알아맞히고 언어로 표현하기



■ 진행 방법

- 웃는 얼굴과 화난 얼굴이 각각 그려진 활동지를 칠판에 제시한다.
- 그림 속의 표정들이 어떤 말을 듣고 이러한 표정을 지었는지 질문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대답을 자연스레 유도한다.
- 지도 교사는 접착 종이와 크레파스를 나누어 준다(접착종이 1명당 2~4장).
- 두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분이나 느낌들을 접착종이에 자유롭게 쓰게 한다.
- 아래 그림과 같이, 참여 청소년들이 질서 있게 앞으로 나와 상반된 두 얼굴에 느낌이나 기분을 적은 접착 종이를 알맞게 붙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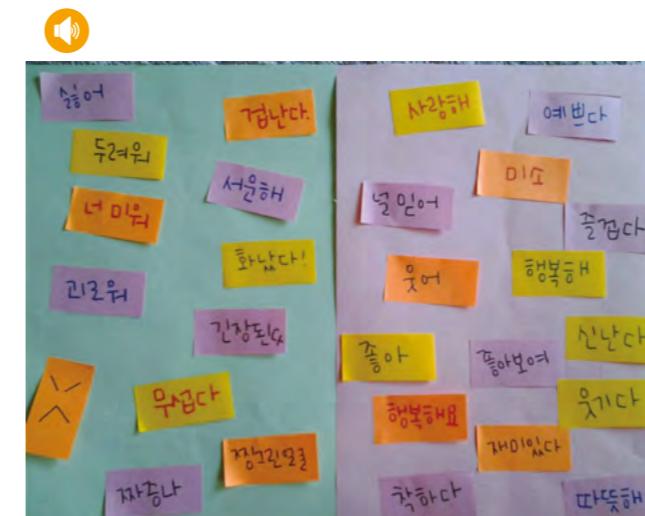
(상반된 얼굴 표정이 그려진 활동지를 칠판에 제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칠판에 그림을 붙였어요. 이게 무엇이죠? 그래요 얼굴 표정이죠. 이쪽 얼굴은 무언가 기분 좋아 보이는 얼굴 표정이고 이쪽은 무언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죠?
여기 이 그림 속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에게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런 표정을 짓게 되었어요. 여기 웃는 얼굴의 친구는 어떤 말을 듣고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다음으로 여기 화난 얼굴의 이 친구는 어떤 말을 듣고 또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붙여진 얼굴 그림을 보고 느껴지거나 생각나는 단어, 문장들을 자유롭게 지금 접착 종이에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차례대로 나와서 앞에 있는 그림에 자신이 쓴 종이를 표정에 맞게 붙여 주세요.

■ 내 용 : 표현된 언어를 보고 자화상 그리기

■ 진행 방법

- 지도 교사는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도입의 결과물을 보며 느낌을 나눈다.
- 느낌을 발표한 참여 청소년에게 보상을 주고, 자원한 참여 청소년 4~5명 정도가 앞으로 나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나 문장을 큰 소리로 읽으며 아래와 그림과 같이 언어만을 분리한다.



전개 20분

- 보조 교사는 참여 청소년 모두에게 도화지를 나누어 준다.
- 지도 교사는 위와 같이 자신들이 적은 언어들을 보고 떠오르는 자신의 얼굴이나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상상하여 자화상을 그리도록 한다.
- **준비물 :** 얼굴 표정(화난/웃는)이 그려진 활동지(*활동 자료에 첨부), 접착 종이, 필기도구, 도화지, 크레파스나 색연필

(결과물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유롭게 발표해 주세요. 발표한 친구에게는 선물이 있다는 것만 살짝 알려 줄게요 (참여를 유도).

: 발표한 참여 청소년들에게 보상을 주고, 얼굴 그림에 붙여진 접착 종이들 중 가장 많이 나온 순서부터 시작하여 크게 발표하게 하며, 자연스레 빈 도화지에 다시 옮겨 붙이는 작업을 돋도록 한다.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 접착 종이들만 붙여져 있는 활동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단어나 문장만을 여기에 이렇게 옮겨 붙여 봤어요.

여기 앞에 있는 종이에 자기가 쓴 언어도 있고 친구들이 쓴 언어도 모두 섞여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고 느낌이나 기분을 접착 종이에 쓰고 얼굴 표정 그림에 붙였죠? 이번에는 이 언어들을 보고 나는 어떤 얼굴을 그리고 싶은지, 내 얼굴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은 미래 나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 저 언어들 중에서 내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지,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를 상상하며 멋지게 내 얼굴을 그려 봐요.

- **내용 :** 발표 및 활동 내용 정리(소감 나누기)
- **진행 방법**
 - 그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참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어 한 명씩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 지도 교사는 활동의 의미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정리 10분

말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는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은 왜 중요할까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이나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화내거나 욕하거나 짜증내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대부분 칭찬이나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자화상을 그리면서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가족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이었나요? 앞으로는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이고 싶나요? 말할 때 표정이 여러분들의 기분과 마음을 알려 주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좋은 얼굴 표정을 보면 바라보는 사람도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화상 속의 행복한 얼굴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과 앞으로의 여러분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활동 자료



얼굴 표정(웃는/화난) 활동지

활동 목표

- 다양한 의성어와 익태어를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언어 표현의 운율적 재미를 느끼고 어휘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저학년 30명 이내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그림 카드, 단어 카드(의성어/익태어), 문장 카드, 각 10개 *모두 활동 자료에 첨부
- 주요 내용

- 제시되는 그림에 맞는 의성어/익태어 표현 맞추기 게임
- 재미있는 언어 표현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흥미 높이기

▪ 유의 사항

- 모둠별로 협동하고, 재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지도 교사는 연령에 따라 익태어/의성어 카드 난이도를 조절한다.
- 그림/단어/문장 카드의 수준은 해당 학년 국어 교과서 의성어 – 익태어로 한정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소개· 의성어/익태어 소개하기	10분	모둠 만들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에 맞게 의성어/익태어 표현하기· 문장에 맞게 의성어/익태어 표현하기	25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5분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 소개하기 및 모둠 만들기

의성어/익태어 간략하게 소개하기

▪ 진행 방법

- 활동의 내용과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 모둠을 편성하고 모둠별 구호를 만든다.
- 학년별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의성어/익태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여러분. 토끼는 어떻게 뛰어요?(깡충깡충) 네, 그렇죠. 그럼 돼지는 어떻게 우는 것
(말하는 것) 같아요?(꿀꿀이요) 그렇죠. 토끼는 이렇게 뛰는 모습을(교사가 몸으로 표현)
그러니까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돼지는요? 돼지는 ‘꿀꿀꿀’ 하고 우는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깡충깡충’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언어가 있고, ‘꿀꿀’처럼 소리를
표현한 언어가 있어요. 물론 움직임과 소리를 동시에 표현한 언어도 있어요.

Memo

전개 25분

- 내용 : 그림에 맞게 의성어/의태어 표현하기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의성어/의태어 표현하기
- 진행 방법
 - 1. 그림에 맞게 의성어/의태어 표현하기
 - 지도 교사는 활동 규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 지도 교사는 모둠별로 동일한 의성어/의태어 단어 카드 묶음을 나누어 준다.
 - 참여 청소년들은 모둠 모두가 단어 카드를 잘 볼 수 있도록 나열하여 놓는다.
 - 지도 교사는 그림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손을 들고 구호를 외친 참여 청소년이 있는 모둠에게 기회를 주고 정답을 맞히면(단어카드를 들어 보이며 크게 읽는다) 모둠별로 보상(물)을 제공한다.
 - 2.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의성어/의태어 표현하기
 - 위와 동일한 진행 방법이 적용된다.
 - 지도 교사가 제시하는 문장카드의 빈칸에 적절한 의성어/의태어를 맞힌다.
- 준비물 : 그림 카드, 단어 카드(의성어/의태어), 문장 카드, 각 10개 *모두 활동 자료에 첨부
- 유의 사항
 - 자발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해, 보상을 예상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한다.
 - 그림 카드 활동 후 문장 카드 활동을 하도록 한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 가장 알맞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재빨리 모둠별로 맞추는 게임을 할 거예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손을 들고 모둠의 구호를 빨리 외치세요(예시) 냄비가 끓고 있는 그림).

두 번째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문장의 빈칸을 표현한 단어를 맞출 거예요. 앞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재빨리 모둠 구호를 외쳐주세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손들고 생각되는 표현 언어를 말해주면 돼요!(예시) “냄비가 OOOO 끓고 있어요.”)

움직이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3차시

정리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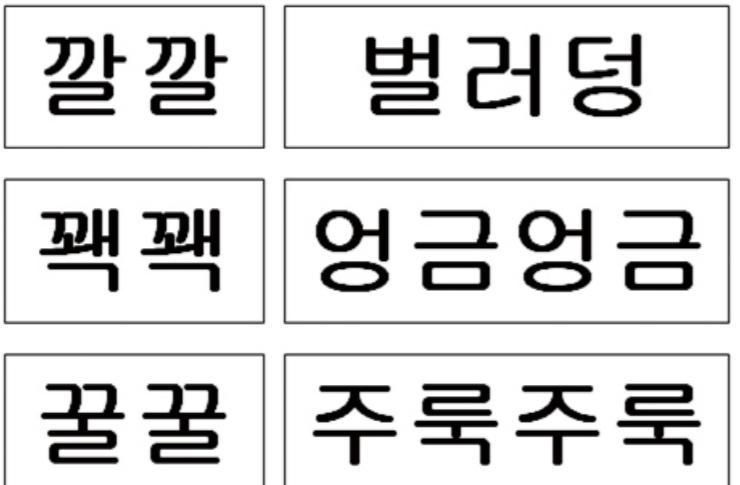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진행 방법
 - 활동에 대한 느낌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
 - 지도 교사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여 말한다.

오늘은 소리를 흉내 내는 말과 모양(동작)을 나타내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맛있는 찌개가 끓고 있어요.”하고 “맛있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라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장이 더 재미있고 실감나요? 또 “철수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하고 “철수가 눈길에 벌러덩 미끄러져 넘어졌어요.”라는 두 가지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더 재미있어요? 이렇게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있겠죠?
오늘 활동에서처럼 우리말은 정말 많은 것들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언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Memo

활동 자료

두리번두리번	딸기닥 딸기닥
느릿느릿	꽥꽥
방울방울	주룩주룩
빙글빙글	냠냠
간질간질	꿀꿀
뒤뚱뒤뚱	깥깥
구불구불	봉봉
동글동글	쪼록쪼록
뭉게뭉게	쨍그랑
그렁그렁	쿵쿵



단어 카드



그림 카드

토끼는 ——————
거북이는 ——————

지희는 ————— 거리며
웃다가 뒤로 —————
넘어졌어요

문장 카드 (※ 위의 활동 자료는 실제 확대 복사하여 사용 가능)

활동 목표

- 나의 정서/감정을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 부정적 언어(정서)표현을 긍정적인 단어로 정화하여 내재화한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초등학교 저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40분
- 장 소**: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5×4 칸 활동지(*활동 자료에 첨부) 30장 내외, 필기도구, 풀, 색종이 1/4크기 30장 내외, 도화지, 2가지색(모둠별로)

주요 내용

- 좋은 말(긍정적 정서)과 나쁜 말(부정적 정서)을 언어로 표현 – 빈칸 채우기(빙고 게임)
- 언어로 표현된 부정적 정서(감정)을 긍정적 단어로 정화시켜보기

유의 사항

- 참여 청소년들이 거부감 없이 즐겁게 자신의 감정(정서)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소개 좋은 말 / 나쁜 말 : 빙고 게임 	15분	모둠 만들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말 새기기 모자이크 	15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10분	

활동 내용

내용

활동소개 및 모둠편성 듣기 좋은 말과 듣기 나쁜 말을 5×4 칸에 채워 넣기 (빙고 게임)

진행 방법

-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모둠을 편성한다.
- 인원수대로 5×4 칸 활동지와 필기도구 사인펜을 나누어 준다.
- 좋은 말(긍정적 정서를 표현한 언어)과 나쁜 말(부정적 정서를 표현한 언어)을 자유롭게 빙칸에 채워 넣는다.



- (빙고 게임 방법) 모둠별로 돌아가며 듣기 좋은 말(긍정적 정서를 표현한 언어)을 표현한 언어만을 골라 큰 소리로 발표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발표한 좋은 말과 동일한 언어 표현은 빨간색 사인펜으로 하트 표시를 하여 지워 나간다(이때 좋은 말이 보이도록 살짝 지운다).
- 위의 좌측 그림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의 줄(좌-우-위-아래-대각선 방향)이 완성되면 그 칸을 표시하고 손을 들어 외치면 그 모둠에게 보상을 준다.
- 각 모둠별로 5×4 칸 활동지에 위의 우측 그림과 같이 남아있는 나쁜 말(부정적 정서 표현 언어) 들 중 모둠원끼리 겹치는 나쁜 말에 파란색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유의 사항

- 만약 하나의 줄이 완성되지 못하면 가장 많이 하트를 표시한 모둠이 이긴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물)을 제시한다. 이때, 지도 교사는 듣기 좋은 말이 많은 팀이 이긴다는 내용의 말은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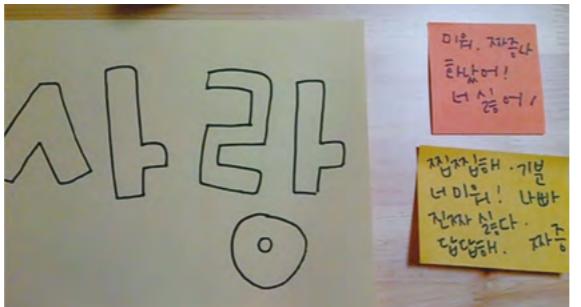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과 기분 나쁜 말, 내가 화났을 때 또는 기분 좋을 때 사용하는 말들을 자유롭게 빙칸 안에 써 보세요.

전개 15분

- 내용 : 아름다운 말 새기기(모자이크)
부정적 단어를 쓴 색종이로 긍정적 단어를 형상화한다.

■ 진행 방법

- 지도 교사는 모둠별로 다양한 색지를 1인당 2장 정도로 나누어 준다.
- 개인별로 이전 도입활동에서 좋은 말을 제외하고 남은 나쁜 말들을 나눠 준 색종이에 적는다.
- 지도 교사는 각 모둠별로 1장의 도화지를 나누어 준다.
- 아래 좌측 그림과 같이 각 모둠별로 가장 아름다운 말을 골라 도화지에 쓴다.
- 나쁜 말들이 적힌 색종이를 아래 그림과 같이 손으로 찢도록 한다.
- 찢어진 조각을 풀로 붙여 새로운 글자(좋은 말)를 완성한다.



- 준비물 : 얼굴 표정 카드와 느낌 문장 카드(모둠별로 총 10개씩), 도화지, 색연필 등 필기도구, 사탕이나 초콜릿

■ 유의 사항

- 지도 교사는 아이들이 모둠별로 언어적 정서 표현에 주목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적절하게 유도한다.

모둠별로 의논해서 가장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도화지에 크게 써 주세요(예시를 보여준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적은 나쁜 말들, 듣기 싫은 말들을 시원하게 찢어버릴 거예요.
아주 작게 갈기갈기 찢으면서 이 나쁜 말들을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모두 찢어내는 거예요.

나쁜 말들을 모두 조각냈으면, 이제 모둠별로 크게 적어 놓은 아름다운 글 위에 이 조각들을 예쁘게 붙여서 완성해 주세요.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하고 소감 나누기

■ 진행 방법

- 활동 결과물을 들고 앞으로 나와 모둠별로 발표한다.
- 지도 교사가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여러분, 오늘 한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둠별로 완성 작품을 들고 나와서 왜 그러한 단어(좋은 말)를 선택하였는지 소감이 어떤지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우리는 오늘 내가 들으면 기분 나빴던 말이나 좋았던 말, 내가 화나거나 좋을 때 사용하는 말을 언어로 표현해보고, 또 하나씩 짚어 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들이 보통 기분에 따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나쁜 말들을 적었던 색종이를 찢고, 그 조각들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변해 가는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어요?

너무 기분이 상해서 나쁜 언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언어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쁜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오늘 활동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남긴 말은 오늘의 결과물처럼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동 자료

5×4 활동지(빙고 게임)

활동 목표

- 의사소통을 할 때,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해 본다.
-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저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그림 속 사물의) 크기와 위치 정보가 한 눈에 파악되는 그림 2개 정도, 종이와 색연필 등(인원수대로)

주요 내용

- 그림 설명을 듣고 그림을 통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경험하기
- 말하는 이와 듣는 이라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나누기

유의 사항

- 지도 교사는 아이들이 의논하여 그림을 그리지 않고, 화자(대표 1명)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유의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활동 소개	10분	
전개	그림 설명하기, 듣고 그림을 통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를 경험하기	2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10분	

활동 내용

내용 : 활동 소개하기

진행 방법

- 화자로 참여할 1~2명 정도의 대표를 뽑는다.
- 활동의 내용과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여러분들이 하게 될 활동은 말하기 – 듣기에 대한 것이에요. 먼저 한 친구를 말하기 대표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친구만 볼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림을 설명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말하는 친구의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말하는 친구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쓸 수 없어요. 대신 손으로 그림 속의 사물이나 방향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자, 준비되었죠?

내용 : 그림 설명을 듣고 말하기 – 듣기의 상대적 측면에 대해 경험하고 이해해 보는 시간 갖기

진행 방법

- 대표자(1명)는 앞으로 나와 선다. 지도 교사는 대표 화자에게만 비교적 간단한 그림을 제시한다. 그러면 대표자는 이를 간단한 손짓과 몸짓 등을 섞어 자유롭게 설명한다. 
- 나머지 청자 입장의 아이들은 화자가 설명하는 바를 듣고 이해하여 그림을 그려 완성한다.
- 그림의 결과에 대해 청자와 화자의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본다. 
- 다시 다른 하나의 그림을 제시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하되, 이번에는 화자가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림에 대해 세심하게 설명한다.
- 그림의 결과에 대해 다시 청자와 화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본다. 

준비물 : (그림 속 사물의) 크기와 위치 정보가 한 눈에 파악되는 그림 2개 종이와 색연필 등 (인원수대로)

도입 10분

전개 20분

■ 유의 사항

- 지도 교사는 비교적 간단한 그림과 그림 속 사물의 위치가 보는 이로 하여금 정확하게 판단되는 것으로 준비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앞에 나와 있는 친구가 그림을 설명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가 끝나는 동시에 각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활동은 정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그림을 보고 그리지 않아도 돼요. 자,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가 끝나고 난 후) 여기 주목.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가 어떤 그림을 설명했는지 보여줄게요.

정리 10
분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및 활동 소감을 발표하기

■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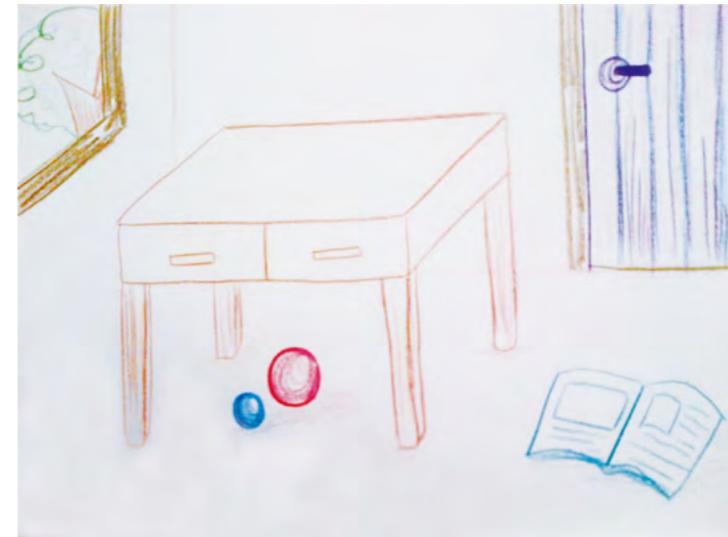
- 지도 교사는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말한다.
- 참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어 한 명씩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온 친구가 설명한 대로 그린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 활동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아이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게 다 맞아요. 말을 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아요. 오늘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작은 그림 하나를 설명하고 또 듣는 것에도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또는 들을 때에도 상대방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활동 자료



예시

어떤 꽃이 자라날까요?

아름답게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

6차시

활동 목표

- 스스로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바른 말 사용에 대한 동기를 얻는다.
- 앞으로의 바른 언어 습관에 대한 자발적인 다짐을 이끌어 낸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저학년 30명 내외 (최대 6명씩 5~6개 모둠)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외 보조교사 2명
- 소요시간 : 40분
- 장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시각 자료(언어 습관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 화분 그림) 두꺼운 판지, 풀이나 테이프 필기도구, 화분, 흙, 꽃씨(다양한 종류와 색의 꽃), 풋말 종이
- 주요 내용

- 언어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 - 시각 자료(그림)로 비교하여 제시
- 화분 만들기 및 선택한 꽃씨와 가장 좋아하는 말 함께 심기

■ 유의 사항

- 지도 교사는 무엇보다 모둠별로 협동하고, 재미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시각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질문하듯 말하여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제시된 시각 자료 보고 생각 나누기	10분	
전개	화분 만들기 및 선택한 꽃씨와 가장 좋아하는 말 함께 심기	2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진행 방법

- 언어 습관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 지도 교사는 질문을 던지며 흥미를 이끌어 내고, 질문 끝에 연구내용과 결과를 설명한다.
- 이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나눈다.

▶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줄 게 있어요(식물이 시든 화분과 식물이 잘 자란 화분이 양분되어
그려져 있는 시각 자료 제시).

자, 여기 이 그림을 봅시다. 한 쪽은 꽃이 시들었고, 또 한 쪽은 꽃이 잘 자라고 있네요.
어느 쪽이 예뻐요? 꽃이 잘 자란 이 화분이 예쁘죠?

그럼 여기 꽃이 시든 화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자유롭게 아이들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맞아요. 주인이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흙에서 영양분이 부족했거나 햇빛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들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든 화분에는 똑같은 조건(물, 햇빛, 영양분)에서 실험자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욕을 했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화분에는 칭찬의 말을 했어요.

■ 내용

■ 진행 방법

- 두꺼운 판지와 도구를 나누어 주어, 각자 원하는 모양으로 화분용기를 만들게 한다.
- 지도 교사는 준비해온 흙을 모둠별로 나누어 주어 각자 알맞은 양으로 화분에 옮겨 담도록
한다.
- 모둠 대표에게 4~5가지 종류의 꽃씨를 고르게 하고 모둠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다.
- 참여 청소년 각자가 앞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고 싶고, 듣고 싶고, 좋아하는 말을 풋말에
쓰도록 한다.
- 마음을 담아 꽃씨와 풋말을 함께 심고 느낌을 나눈다. ▶

도입 10
분

전개 20
분

어떤 꽃이 자라날까요?

아름답게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

6차시

■ 준비물 : 두꺼운 판지, 풀이나 테이프, 필기도구, 화분, 흙, 꽃씨, 풋말 종이

■ 유의사항

- 지도 교사는 되도록 긍정적인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하도록 한다.
- 아이들이 화분을 만들고, 흙을 담고, 꽃씨를 좋아하는 단어와 함께 심는 일련의 과정에 의미를 두고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꽃을 담을 예쁜 화분을 만들고 각자 선택한 예쁜 꽃씨를 심을 거예요. 꽃씨를 심으면서 생각나는 내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고 싶고, 듣고 싶고, 좋아하는 말을 풋말에 써서 함께 심는 활동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꽃씨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예쁜 꽃으로 자라줄지, 꽃이 예쁘게 잘 자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꽃씨에게 말해 주면서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오늘 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해보죠.

 우리가 오늘 심은 꽃은 부디 여러분의 예쁘고 멋진 얼굴만큼 밝고 환하게 피어나기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볼 사람?

선생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해요. 이 꽃씨를 심은 용기는 집에 가서 예쁜 화분으로 옮겨 주고 매일 매일 물도 주고 햇빛도 보여주면서 예쁜 말 한마디씩 이 화분에게 해주는 것!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이 선택(꽃의 종류와 색깔)하고 심은 꽃씨가 어떻게 자라날지 기대하며 앞으로의 바른 언어 습관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활동 자료



시각 자료(시든 꽃 화분 / 잘 자란 꽃 화분)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하고, 소감나누기

■ 진행 방법

-  지도 교사는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모든 차시가 연계활동이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모든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수료증이나 금메달 등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한 명씩 나누어 준다.

■ 준비물 : 수료증이나 금메달 등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 준 두 개의 화분은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의 화분은 시들어 버렸고, 또 하나의 화분은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대답을 들은 후) 그렇죠. 바로 ‘어떤 말을 해주었느냐’가 두 화분을 다르게 변하게 했었죠. 작은 식물들도 우리의 말 하나에 교감을 느끼고, 그 말이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줬죠? 오늘 우리가 심은 것은 어떤 꽃이었는지, 어떤 마음 그리고

0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초등학교 고학년용

- 41 말 놀이터 (1차시)
- 46 고운 입, 미운 말 (2차시)
- 51 무지갯빛 우리말 놀이 (3차시)
- 55 버리는 말 (4차시)
- 59 거울아 거울아 (5차시)
- 62 나는 바른 말 작사가 (6차시)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차시별 프로그램 구성

차시	구분	프로그램	내용
1	흥미 유발	말 놀이터	내가 알고 있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 들어 본 말,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말을 적어봄으로써 나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가지기
2	동기 유발	고운 입, 미운 말	우리가 사용하는 고운 말과 나쁜 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림 이어 그리기를 통해 알아보고, 영상을 통해 객관화하기
3	언어적 측면	무지갯빛, 우리말 놀이	윷놀이를 통해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알아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신조어나 비속어를 대신할 대체 언어 찾기
4	정서적 측면	버리는 말	평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잘 못된 표현 방법을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올바른 감정 표현 방법 사용하기
5	사회적 측면	거울아 거울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알아보고, 나의 미래 자아상을 그려봄으로써 품위에 맞는 언어 사용을 깨닫기
6	마무리 및 다짐	나는 바른 말 작사가	바른 말 사용에 관한 나의 다짐을 동요 개사를 통해 나타내고, 발표하기

활동 목표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시간 동안 지켜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참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고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명찰, 도화지, 필기도구, 사인펜(혹은 색연필)

주요 내용

- 본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설명하기
- 자신의 언어 습관 점검하기
-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가지기

유의 사항

- 자신의 언어습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자칫 욕을 소재로 장난을 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본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언어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임을 강조한다.
- (연속 차시로 진행할 경우) 첫 차시에 기대감과 흥미를 유발하여 남은 차시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및 규칙 소개 · 자기소개(필요시)	10분	
전개	· 전체 프로그램 소개 및 규칙 설명 · 나의 언어습관 점검 및 기대감 갖기	20분	
정리	· 활동 정리 및 마무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 용 : 활동 소개 및 규칙 설명

■ 진행 방법

- 구성원이 서로 모르는 경우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눈다.
- 지도 교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시간에서 지킬 점, 주의할 점 등을 이야기한다
(지도 교사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언어(말)에 대해 각별히 조심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전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 글, 눈짓, 손짓, 몸짓 등이죠. 그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바로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프로그램 설명).

전개 20분

■ 내 용 : 나의 언어 습관 점검 및 기대감 가지기

■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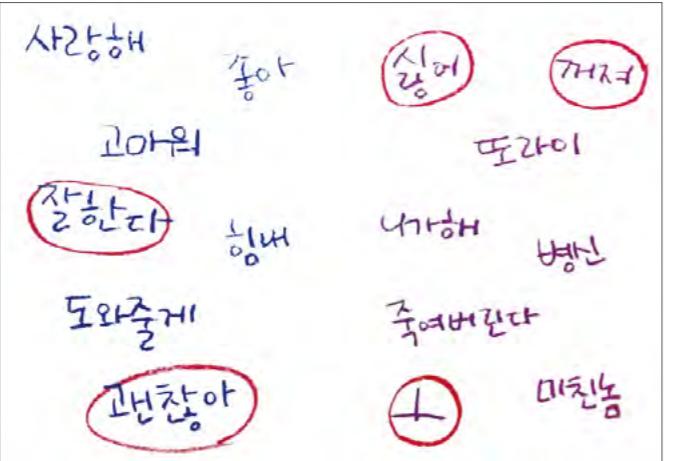
- 참여 청소년들에게 도화지와 사인펜(혹은 색연필)을 나누어 준다.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 왼쪽에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말, 오른쪽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나쁜 말을 도화지 위에 자유롭게 적어본다.
(지도 교사는 몇몇 친구가 적은 내용을 소개한다)
- ‘알고 있는’ 말들 중에 내가 실제로 ‘들어 본’ 좋은 말/나쁜 말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본다.
- 좋은 말을 들었을 때와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는지,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각각 이야기해 본다.
- 다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봤던’ 좋은 말/나쁜 말을 세모로 표시해 본다.
- 표시한 것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로 하는 말에 좋은 말과 나쁜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많은지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한다.
- 내가 ‘알고 있는’ 말과 ‘들어 본’ 말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통해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말은 어떠한지 점검해 본다.

■ 준비물 : 도화지, 필기도구, 사인펜(혹은 색연필)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말은 왼쪽에 나쁜 말은 오른쪽에 적었죠? 적은 말 중에 내가 실제로 ‘들어 본’ 적이 있는 말을 동그라미 해 보세요. 여러분은 좋은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나요, 아니면 나쁜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나요?

이번에는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해봤던 말을 세모로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나요, 나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말과 ‘들어 본’ 말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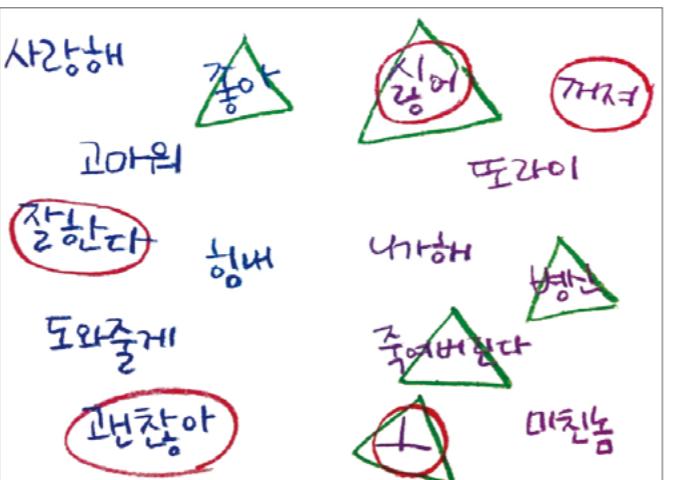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말(왼쪽), 내가 알고 있는 나쁜 말(오른쪽)
이 중 내가 들어 본 좋은 말/나쁜 말에 동그라미하기

■ 내용 : 활동 정리 및 마무리

■ 진행 방법

-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일상에서 나쁜 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의 활동들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게 한다.

오늘 도화지에 적어 보니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중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쓸 때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말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러 활동들을 통해 우리말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 본 좋은 말/나쁜 말에 세모하기

Memo

활동 목표

- 우리가 사용하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식한다.
- 말의 힘과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 개선을 결심한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고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 물 : 명찰, 영상자료, 음향 및 영상투사기(빔 프로젝터), 도화지, 필기도구, 색연필 및 그림 도구

■ 주요 내용

- 그림 이어그리기 : 말의 영향력 알기
- 말의 힘과 중요성 깨닫기
-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기

■ 유의 사항

-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친구의 그림에 그림을 그려주거나 말을 적어줄 때,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님을 강조하고 그 단어에 대해 느낀 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차시는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언어(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에서 언어(말)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	10분	
전개	·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영향(그림 이어 그리기) · 말의 힘과 중요성 알기	20분	
정리	· 활동 정리 및 마무리	10분	

■ 내용

■ 진행 방법

- 인사한다.
- 본 차시의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는 '입'으로 밥도 먹고, 숨도 쉬고, 말을 해요.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나요?

좋은 말만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때로는 나쁜 말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10
도입

전개 20분

■ 내용 : 그림 이어 그리기, '말의 힘' 동영상 보기(객관적 자료 제시)

■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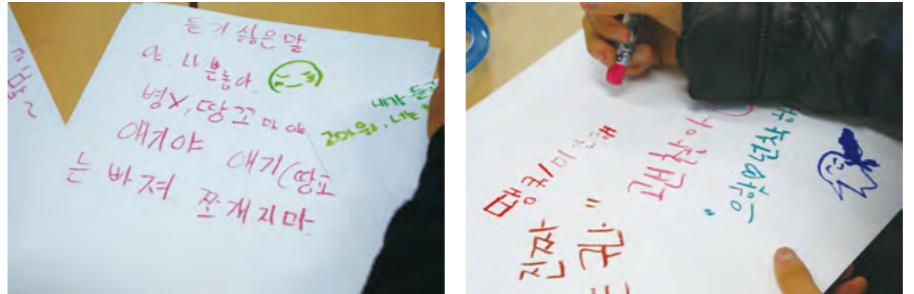
- 6~7명이 한 모둠이 되어 동그랗게 둘러앉는다(참여 인원수에 따라 조절 가능). 한 모둠은 5~10명이 좋다.
- 청소년들에게 각각 도화지 2장(1인 2장)을 나누어 준다. 종이 한 장에는 '내가 평소 듣고 기분 좋았던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좋은 말'을 선택하여 적고, 다른 한 장에는 '내가 평소 듣고 기분 나빴던 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나쁜 말'을 선택하여 적는다(최대 2가지만 적는다). 적은 종이 2장을 오른쪽 친구에게 전달한다. 모둠 구성원들은 종이에 쓰여 있는 단어에 어울리는 말이나 그림을 한두 가지씩 적거나 그려 준다. 모둠 안에서 자신의 종이가 한 바퀴 돌아 자기에게 오면 완성된다.
-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적은 뒤 친구들이 그려준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한 느낌을 돌아가며 말해 본다.
- 좋은 말과 나쁜 말 한 마디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것, 그것이 완성되어 나온 그림의 느낌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 MBC 특집 '실험다큐-말의 힘' 영상을 발췌하여 보여 준다(영상 : 흰 쌀밥 두 공기에 각각 좋은 말 (고맙습니다)과 나쁜 말(짜증나)을 한다. 일주일이 지난 뒤, 좋은 말을 들은 밥과 나쁜 말을 들은 밥의 차이를 통해 말의 힘을 설명한다).

■ 준비물 : 도화지, 필기도구, 색연필 및 그림 도구, '말의 힘' 영상 자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각각 적은 종이에 친구들이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거나 말을 적어주었는데요. 각각 그림의 느낌이 어떤가요?
(몇몇 아이들의 발표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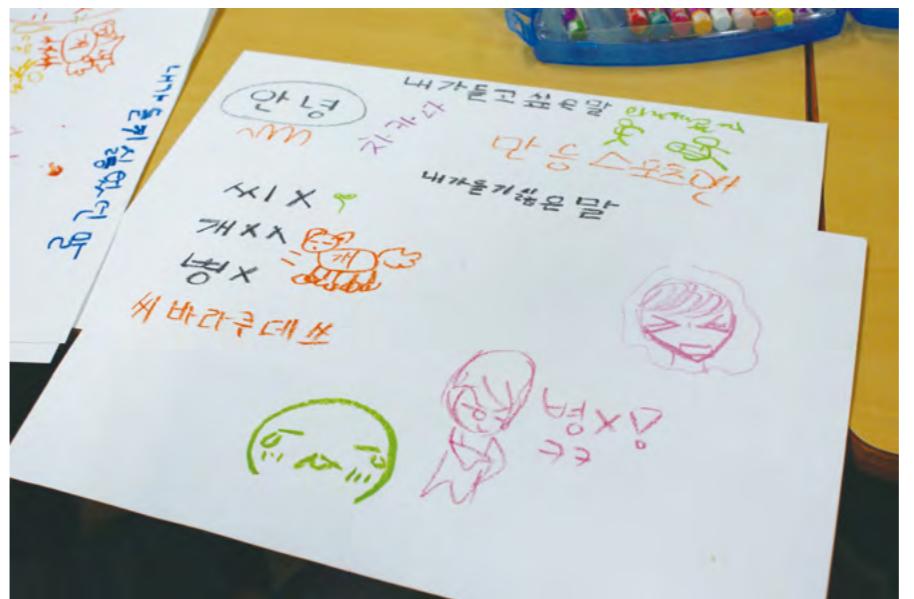
영상에서 "고맙습니다"와 "짜증나", 두 가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은 두 밥은 어떻게 되었나요? 좋은 말을 들은 밥은 하얀 누룩이 생기고,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었던 밥은 보기에도 시커먼 곰팡이가 생기고, 또 고약한 냄새가 났죠. 만약 이것이 밥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였다면 어땠을까요?

고운 입,
미운 말
2차시



듣기 싫은 말/나쁜 말

듣고 싶은 말/좋은 말



모둠의 친구들은 두 장의 종이에 어울리는 말을 적거나 그림을 그려준다.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정리 및 마무리

■ 진행 방법

- 오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중요한 점을 짚어 준다.
- 이 시간을 통해 배운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기억하며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말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Memo

활동 목표

-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게 한다.
-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신조어나 나쁜 말을 대신할 대체 언어를 찾는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고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명찰, 도화지, 굵은 펜(매직), 윷판, 윷, 말, 수행 카드
- 주요 내용

-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방법 알기 : 윷놀이
- 대체 표현 찾기

■ 유의 사항

- 청소년들이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돋는다. 새롭게 등장하는 말과 올바르지 않은 말들에 대해 직접 대체 표현을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하기	10분	
전개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 방법 알기(윷놀이)	20분	
정리	대체 언어 찾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10분	

무지갯빛
우리말 놀이
3차시

1장

초등학교 저학년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2장

초등학교 고학년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3장

중학생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4장

고등학생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부록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도입 10분

전개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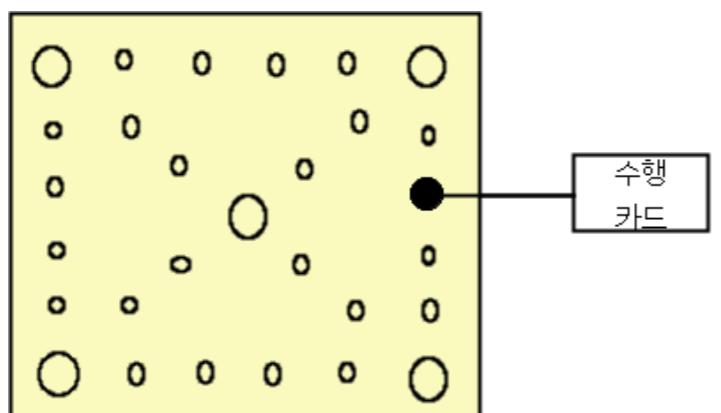
무지갯빛 우리말 놀이 3차시

활동 내용

- 내용 :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하기
- 진행 방법
 - 인사한다.
 - 본 차시의 내용을 소개한다.

여러분은 ‘좋다’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좋아’라는 정확한 표현도 사용하지만, ‘짱이야’, ‘레알’이라는 말들로 ‘좋다’를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말은 하나의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올바른 우리말보다 올바르지 않은 신조어나 나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말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새롭게 등장하는 말과 올바르지 않은 말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재미있는 윷놀이를 통해 알아볼 거예요.

- 내용 :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 방법 알기(윷놀이)
- 진행 방법
 - 모둠을 구성한다. 한 모둠에 5~6명이 되게 하여 모둠을 만드는 것이 좋다.
 - 각 팀별로 색이 다른 말을 2개씩 선택하게 하고, 윷을 던질 순서를 정한다.
 - 윷판에 그려진 미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규칙과 방법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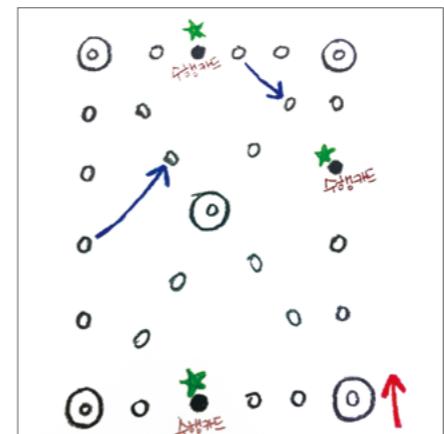


* 윷판 곳곳에 수행카드를 놓아두거나, ‘수행카드’라고 표시해둔다. 윷을 던져 그 곳에 말이 놓이게 되면, 지도자가 준비한 수행 카드에 적힌 내용을 수행한다. 카드 내용을 수행할 경우 윷을 한 번 더 던지고,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순서에 한 번 더 도전하도록 한다. 말 2개가 먼저 도착하는 팀이 우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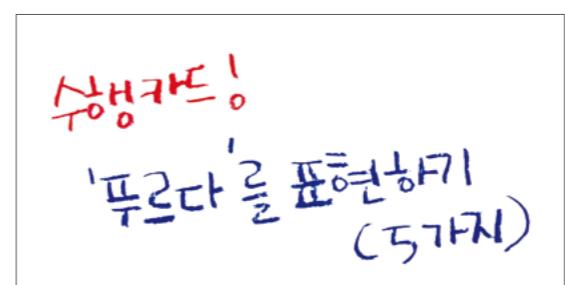
〈수행카드의 예〉

- 1) ‘푸르다’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을 팀별로 적게 한다.
성공: 시퍼렇다, 검푸르다, 파랗다, 퍼렇다 등등
실패: 붉다, 아름답다, 좋다
- 2) 우리가 쓰는 나쁜 말 하나를 말하고, 그 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찾기
- 3) ‘기쁨’을 표현하는 말 5가지 말하기
- 4) ‘짜증’을 표현하는 말 5가지 말하기

- 준비물 : 윷판, 윷, 말(2개씩 팀의 수만큼), 수행카드, 종이, 필기도구



윷판 위에 수행카드와 여러 가지 규칙을 그려 넣는다.



수행카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언어 표현 방법에 대한 것으로 만든다.

정리 10분

■ 내용 : 대체 표현 찾기, 활동 정리 및 마무리

■ 진행 방법

- 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 중 신조어나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하나씩 선택하여 올바른 표현 또는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정하고, 앞으로 그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오늘 활동에 대해 느낀 점과 소감을 말해 본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나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이제부터 그 말을 대신하여 사용할 올바른 말을 정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짱이야’, ‘레알’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그렇죠. ‘정말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방금 친구들이 정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요.

Memo

활동 목표

- 감정을 표현하는 나의 방법(언어)을 살펴본다.
- 감정에 대한 잘못된 표현은 버리고, 버린 표현 대신 쓸 나만의 올바른 표현을 정한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고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명찰, 도화지, 필기도구, 쓰레기통

■ 주요 내용

- 감정에 따른 나의 표현 방법, 잘못된 표현을 욕 쓰레기통에 버리기

■ 유의 사항

-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적어볼 때, 최대한 솔직히 자신의 평소 사용하는 말에 대해 적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이들끼리 장난스럽게 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쓰레기통은 속이 보이는 투명한 것으로 하면 더욱 좋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하기	10분	
전개	· 감정에 따른 나의 표현 방법 · 욕 버리기(욕 쓰레기통)	20분	
정리	· 활동 정리 및 마무리	10분	

버리는 말
4차시

도입 10분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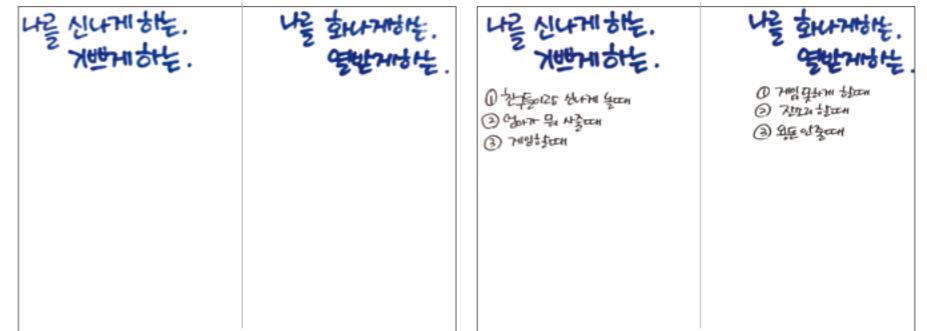
- 내용 :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하기
- 진행 방법
 - 오늘의 기분을 '다섯 글자'로 이야기해 본다.
 - 본 차시의 내용을 소개한다.

오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봅시다. (들어본 뒤) “너무 짜증나”인 친구들도 있고, “오늘 기분 짱”인 친구들도 있네요.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화날 때, 또는 매우 신날 때 내가 어떤 말로 그 기분을 표현하는지 알아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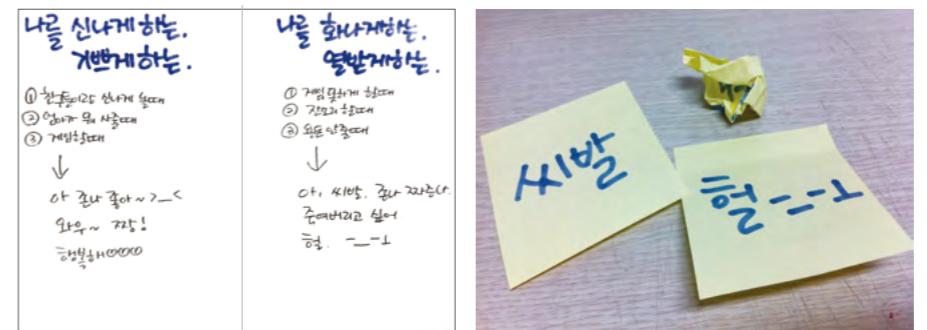
전개 20분

- 내용 : 감정에 따른 나의 표현 방법, 나쁜 표현 방법(욕) 쓰레기통에 버리기
- 진행 방법
 - 모두에게 도화지를 나누어 준다.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 왼쪽에는 ‘나를 신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상황을, 오른쪽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나를 열 받게 하는’ 상황을 두세 가지씩 적는다.
 - 각각의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하는 표현(말)을 솔직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예: 기쁠 때 • 아싸! 존나 좋아! / 나쁠 때 • 아 써발. 죽여버려)
 - 자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의 방법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본다.
 -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욕 쓰레기통
: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옳지 않은 말들을 종이에 적어 구긴 뒤, 쓰레기통에 버린다.
 - 쓰레기통에 버린 말을 대신하여 사용할 표현을 생각해 적어 보고, 발표한다.
- 준비물 : 도화지, 필기도구, 색연필 및 그림 도구, ‘말의 힘’ 영상 자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적어봤어요.
우리는 왜 우리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표현 방법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방금 적은 내용 중에 내가 앞으로는 쓰지 않아야 할 표현을 적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해요. 옳지 않은 표현 대신 바른 방법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도화지 원쪽과 오른쪽을 나누어 각 상황을 적는다.



각 상황에서 쓰는 감정 표현 방법을 솔직하게 적는다.



버리고 싶은(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말을 적어 구긴 뒤,
욕 쓰레기통에 버린다.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정리 및 마무리

■ 진행 방법

- 오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느낀 점을 말해 본다.
- 이제부터 오늘 정한 표현으로 나의 기분을 표현해 보기로 약속한다. 

 우리가 기쁠 때, 또 화가 날 때 나도 모르게 욕이나 나쁜 말로 그 기분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기쁠 때보다 화가 날 때 더 많은 욕이나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몇몇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우리가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현하거나 나쁜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 말을 듣는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기분은 좋은 표현으로, 그리고 나쁜 기분은 조금 더 순화된 표현으로 표현해야 해요.

Memo

활동 목표

-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알아본다.
- 나의 미래의 자아상을 그려보고, 그러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본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고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명찰, 도화지, 색연필 및 필기도구
- 주요 내용

- 직업에 따른 사용 언어 알기
- 나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언어 생각해 보기

■ 유의 사항

- 직업을 선택할 때, 사회적으로 우월한 직업만 선택하여 직업에 따른 높고 낮음을 나타내지 않게 유의한다. 어떠한 직업이라도 귀한 직업이고, 그 직업에 따라 품위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해 준다.
-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떠올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성과 성품과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	1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에 따른 언어 알기• 나의 미래 모습과 언어 생각하기	2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정리 및 마무리	10분	

거울아 거울아
5차시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하기

■ 진행 방법

- 아이들에게 나중에 되고 싶은 직업이 있는지 물어본다. 되고 싶은 직업이 없다면 멋지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 그 직업이 왜 멋지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 본 차시의 내용을 소개한다.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나요?(발표 후)

과학자, 대통령, 선생님,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또 되고 싶은 직업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 직업들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직업에 어울릴까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욕설을 한다거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비속어를 쓰고 친구에게 말을 하듯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 품위에 어울리지 않겠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직업을 갖게 되면 그 품위에 맞는 행동과 언어를 사용해야 해요.

전개 20분

■ 내용 : 직업에 따른 언어 알기, 나의 미래 모습과 언어 생각하기

■ 진행 방법

- 모둠을 인원에 따라 나눈다(5~6명이 한 모둠이 되게 한다).
- 모둠별로 직업을 하나씩 정하게 하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을 전지에 적게 한다.
- 모둠별로 나와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 발표해 본다.
- 각자 자신이 나중에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용해야 하는 말과 사용하지 않아야 할 말을 적어본다(갖고 싶은 직업이 없는 친구는 어른이[또는 엄마나 아빠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로 적어 보게 한다).
: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직업을 이룬다면, 그리고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면 사용해야 할 말과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자신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한다.

■ 준비물 : 전지, 도화지, 필기도구, 색연필 및 그림 도구

거울아 거울아 5차시

각 모둠별로 직업에 따른 말을 잘 발표해 주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요? 구체적으로 되고 싶은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사용해야 할 말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적어봅시다. 만약, 아직 되고 싶은 직업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중에 어른이 [또는 엄마나 아빠가] 되었을 때 사용할 말을 적어보세요.

■ 내용 : 활동 정리 및 마무리

■ 진행 방법

- 눈을 감고 우리의 20년 뒤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본다. 오늘부터 하는 작은 노력과 마음이 그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 뒤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어 있거나, 아빠가 되어 있나요?

20년 뒤의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이 20년 후의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기억해요.

정리 10분

활동 목표

- 동요를 개사하여 언어(말) 습관에 대한 다짐을 나타낸다.
- 모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다짐을 서로 응원한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초등학교 고학년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 소요시간 : 4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명찰, 종이, 상장, 선물(시상)
- 주요 내용
 - 다짐하기(동요 개사하기), 발표회 및 시상식
- 유의 사항
 -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했던 '말'에 대한 생각으로 가사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다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참여 청소년들을 돋는다.
 - 참여 청소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돋고, 충분히 격려하고 응원한다.

활동 내용

- 내용 :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하기
- 진행 방법
 - 인사한다.
 - 본 차시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을 쓸 것인지, 어떠한 생각으로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작곡가가 되어 우리만의 노래로 만들어 봐요.

■ 내용 : 동요 개사하기

- 진행 방법
 - 모두가 알 수 있는 짧은 동요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언어(말)에 대한 나의 다짐과 느낀 점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본다. 제목도 붙여본다(동요의 예: 개굴개굴 개구리, 풍당풍당, 솜사탕 등).
- 준비물 : 종이, 필기도구, 피아노 혹은 동요 MR과 오디오, 상장, 선물(시상용)

활동 과정 개요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시간	비고
도입	· 인사하기, 본 차시 활동 소개	10분	
전개	· 다짐하기(나는 바른 말 작사가)	15분	
정리	· 발표회 및 시상식 · 활동 정리 및 마무리	15분	

개사자료 예시 – 솜사탕 개사

바른 말 김철수

나쁜 말쓰면 나빠요 친구들이 싫어해
바른말써야 좋아요 내마음이 환해져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선생님께도
좋은 말쓰는 내가될래요 바른말 김철수

여러분이 만든 동요를 들어 보니 정말 멋지네요.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꿔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조심하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런 예쁜 말로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Memo

■ 내용 : 발표회 및 시상식, 활동 정리 및 마무리

■ 진행 방법

- 발표회 및 시상식을 진행한다.
- 순서를 정하고, 모두가 앞에 나와 자신이 만든 동요를 발표한다. 친구들은 박수로 격려한다.
- 시상식 : 참여한 모든 청소년에게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다짐한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가장 창의적이고 다짐이 솔직하게 잘 드러나게 개사한 친구 3명은 특별 시상한다.
- 언어습관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점임을 강조하고, 참여 청소년들이 서로 도울 것을 당부한다.
-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돌아가며 이야기해 본다.
- 우리의 언어(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마친다.

정리 10 분

0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중학생용

- 69 나의 언어 습관 점검하기 (1차시)
- 75 어휘력 알아보기 (2차시)
- 79 옥 어원 알아보기 (3차시)
- 83 말에 울고 웃고 (4차시)
- 87 내 안의 어두움 내보내기 (5차시)
- 90 말하는 대로 (6차시)
- 94 옥을 물리치는 광고 노래 (7차시)
- 97 광고 포스터 만들기 및 다짐 (8차시)



**차시별
프로그램 구성**

차 시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1	언어적 측면	언어 습관 (자기점검)	나의 언어 습관 점검하기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쁜 말 불링 핀을 만들어 무너트리기
2		어휘력 알아보기	초성을 제시하여 모둠별로 더 많은 단어를 만들어 보기
3		욕 어원 알아보기	모둠별로 등 뒤에 붙인 단어(욕)와 숨겨진 욕의 뜻을 맞추어 보기
4	정서적 측면	말에 울고 웃고	원을 지어 한사람에게 고운 말과 나쁜 말을 각각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며 말해보기
5		내 안의 어두움 내보내기	병 속에 자신의 속에 있는 나쁜 감정, 나쁜 말을 말하고 그 말에 어울리는 색을 담아보기
6	사회적 측면	말하는 대로	상황에 맞는 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말을 초로 적어보고 그 위에 자화상 그려보기
7	바른 언어 길라잡이 (행동하기)	욕을 물리치는 광고 노래	투명 비닐에 내가 듣고 싶거나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고운 말들 적은 베개와 고운 말 카드 만들기
8		광고 포스터 만들기 및 다짐	언어 개선 광고 포스터 만들고 새로운 습관을 위하여 자화상 위에 자신이 버리고 싶은 말 하나를 지정하고 새로운 다짐하기

활동 목표

-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언어 사용 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육설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중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교사 2~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페트병 30개, 고무공, 구슬 크기의 플라스틱 공

주요내용

- 최근 청소년 언어 실태 점검하기
- 나의 언어 습관 점검하기
- 나쁜 말 불링 핀 만들기

유의 사항

- 청소년 언어실태 뉴스 이야기는 다음 활동을 위한 도입 단계로 짧게 진행한다.
-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 분	시 간	비 고
도 입	· 활동 소개	10분	
전 개	· 나의 언어 습관 점검하기 · 나쁜 말 불링 핀 만들기	30분	
정 리	· 활동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 용 : 프로그램 취지, 활동 절차를 설명하고 모둠 편성

■ 진행방법

-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이 언어 개선을 위한 활동임을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 언어 개선 프로그램은 청소년 스스로가 현시점에서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설명한다.
- 현재 청소년들의 육설 사용에 관한 뉴스 등을 다루며 육설 사용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임을 설명한다.

요즘 청소년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 여기저기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지금 나의 언어 사용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이제 앞으로 8차시 동안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현재 여러분의 언어습관을 되돌아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개 15분

■ 내 용 : 상황 (장소)에 따라 어떠한 말을 사용하는지 점검해 보기

■ 진행방법

- 여러 가지 상황이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준다.
-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진실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실제로 육을 사용한다면 육을 써도 된다고 알려준다.
-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스스로 작성하게 한다.

■ 유의 사항

- 지도 교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게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먼저 작성한 사람들은 떠들지 않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른 상황도 만들어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지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 상황을 추가해도 된다.

종이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고 거짓 없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말고 만약 육을 쓴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써 주세요. 이것은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니 거짓 없이 써 주세요.
다 쓴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다 쓸 동안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

■ 내 용 : 작성한 상황별 종이에 나쁜 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그 단어들을 작은 구슬(공)에 적은 뒤 페트병 볼링 핀 안에 넣은 후 볼링 핀 무너뜨리기

■ 진행방법

- 작성한 언어표를 보고 자신이 보기에 나쁜 말이라고 생각되는 단어나 말을 선택한다.
- 지도 교사가 준비한 구슬(작은 공)에 그 단어들을 하나씩 새긴다.
- 지도 교사는 한 사람당 하나씩 빈 페트병을 나눠 준 뒤 각자 적은 구슬을 페트병 안에 넣도록 한다.
- 친구들과 바꿔 훔들어 보기도 하고 무게를 비교해 본다.
- 각자의 페트병을 세워 두고 돌아가면서 볼링처럼 페트병을 무너뜨리게 한다.
- 도우미 2명을 지원하게 하거나 임의로 뽑아 무너진 페트병을 세우도록 한다.

■ 준비물 : 페트병, 구슬(작은 공), 큰 공(볼링공만한), 펜

■ 유의 사항

- 페트병이나 공을 서로에게 던지거나 장난치지 못하게 주의시킨다.
- 인원수에 따라 모둠을 두 모둠(15명)으로 나눠 볼링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15분

정리 10분

앞에 작성한 표를 보고 자신이 말하는 단어 중 다른 사람이 듣기 거북하다고 느끼거나 스스로가 보기에 나쁜 말과 좋은 말을 구분해 보세요(동그라미, 세모 등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나눠준 작은 공에 나쁜 말을 하나씩 작성해 보고 빈 페트병에 넣어 보세요.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페트병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무게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만든 페트병을 이곳에 두고 한 사람씩 볼링 형식으로 무너뜨려 볼게요.
페트병을 무너뜨릴 때는 자신의 나쁜 말을 쓰러뜨린다는 느낌으로 공을 세게 던져 보세요.

■ 내용 : 활동에 대한 느낌과 생각 및 소감을 돌아가면서 나누어 본다

■ 진행방법

- 돌아가면서 오늘의 느낌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 지도 교사는 오늘 한 활동에 대하여 나쁜 언어는 없어지고 좋은 언어만 남길 바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 준비물 : 일지 노트 또는 A4용지(색자), 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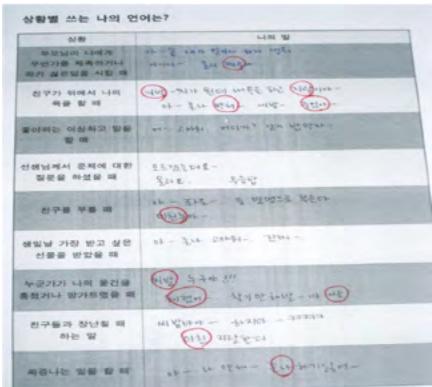
오늘 각자 상황에 따라 어떠한 말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많이 쓰는 단어나 표현 방식이 어떠한지 알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 나쁜 말은 페트병 안에 담아서 무너뜨려 보았으니 이제 우리 안에 남은 좋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활동 자료

상황	나의 말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재촉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친구가 뒤에서 나의 옥을 할 때	
좋아하는 이성에게 밥을 먹자고 할 때	
선생님께서 오늘 기분을 물어보셨을 때	
친한 친구를 부를 때	
생일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훔쳤거나 망가트렸을 때	
친구들과 장난칠 때	
짜증나는 일을 할 때	

언어표 상황별로 내가 쓰는 언어는?

활동 자료



① 언어표에 상황별로 작성한 후 나쁜 말을 선택한다.



② 구슬에 선택한 단어를 적는다.



③ 페트병에 구슬을 넣는다.



④ 공을 준비한 후 페트병 무너트리기 활동을 한다.

활동 목표

- 평소 자신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수 있다.
- 단어 만들기를 통하여 어휘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중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교사 2~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초성 카드, A4용지, 볼펜, 자음·모음 움직임 판(전자로 대체 가능) 5~6개, 편한 복장
- 주요내용**
 - 초성으로 단어 만들기를 통해 어휘력 점검하기
- 유의 사항**
 - 단어를 만들 때는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만 인정한다.
 - 움직임 활동을 할 때 신체 접촉이 있으므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남·여 모둠으로 나눌 수 있다.
 -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초성으로 어휘력 게임	10분	
전개	온몸으로 단어를 만들기	3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 용 : 초성을 제시하고 모둠별로 더 많은 단어를 만들기

■ 진행방법

- 5명이 한 모둠이 되도록 모둠을 나눈다.
- 지도 교사는 초성 카드를 제시한다.
- 모둠별로 1분간 생각나는 단어를 최대한 만든다.
- 지도 교사는 서로 다른 모둠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 각 모둠별로 어떠한 단어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더 많은 단어를 만든 모둠이 승리한다.
- 초성 카드는 3~5개 정도 준비하고 시간을 보며 조절한다.

■ 유의 사항

- 모둠은 지도 교사가 임의로 만들어도 되고 짹짓기 놀이를 통하여 5명으로 나누어 모둠을 만들어도 된다.
-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만 허용한다.

■ 준비물 : 초성 카드, 각 모둠에 나눠 줄 종이와 펜

이번 활동을 통해 평소 자신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모둠별로 앞에 초성을 보고 종이에 1분 동안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만듭니다.

각 모둠별로 어떠한 단어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몇 개가 나왔나요?

○○ 모둠이 가장 많이 나와서 1등입니다.

다른 모둠과 어떠한 단어가 다른지 한번 찾아봅시다. 같은 초성이라도 정말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네요. 그 중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전개 30분

■ 내 용 : '자음', '모음'으로 된 판 위에 손, 발을 이용하여 단어를 만든다.

■ 진행방법

- 하나의 큰 판에 2모둠씩 게임을 시작한다(예시 그림 참조).
- 초성 카드를 준비한다.
- 모둠1이 초성카드를 2개 뽑는다(예. [ㅅ] [ㄹ]). 모둠1은 뽑은 초성을 가지고 단어를 만든다 (예. 사랑, 시루, 사료).
- 모둠2 모둠원은 손, 발을 사용하여 단어를 완성한다(한 사람이 한 글자를 담당한다).
-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모둠이 승리한다.

■ 준비물 : 초성 카드, 자음 · 모음 움직임 판(전지로 대체 가능) 5~6개, 편한 복장

■ 유의 사항

- 단어를 만들 때는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만 인정한다.
- 움직임 활동을 할 때 신체 접촉이 있는데 만약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시 남 · 여 모둠으로 나눌 수 있다.
-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 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잘 고정시킨다.
- 판에 있는 자음 모음 자리는 지도 교사가 변경해도 된다.

두 모둠이 한 자음 · 모음 움직임 판에서 활동합니다. 한 모둠(모둠1) 중 한 명이 초성 카드 2개를 뽑습니다. 뽑은 초성으로 단어를 만드세요.

이 모둠(모둠1)이 만든 단어로 또 다른 모둠(모둠2) 중 2명이 나와서 손과 발로 단어를 완성하세요.

순서를 바꾸어 모둠2가 초성 카드를 뽑아 단어를 만들고 모둠1이 단어를 완성하세요. 서로 각 모둠이 판에 얹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무너지면지는 겁니다.

정리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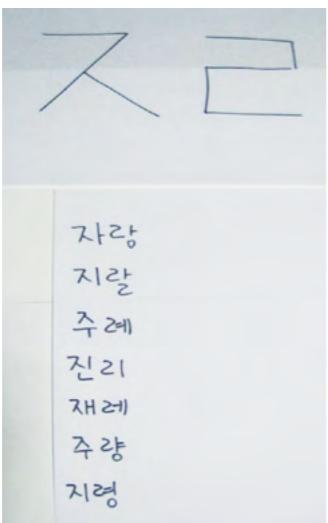
■ 내 용 : 각 모둠별로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발표해 본다.

■ 진행방법

- 모둠별로 자신들의 어휘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에 대한 정리
- 각 모둠별로 활동의 느낌을 서로 나누어 보고 대표로 한 명이 소감을 발표한다.

 같은 초성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군요. 또한 여러분의 어휘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네요.
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단어 연상 능력과 어휘력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진 풍부한 표현의 단어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화하도록 노력해요.
오늘 활동에 대한 느낌을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어 보고 각 모둠 대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활동 자료



초성 카드로 단어 많이 만들기 활동 예시

초성 예시

- ① ㅈ ㄹ ② ㅁ ㅊ ③ ㅇ ㅂ ④ ㅅ ㅂ ⑤ ㅈ ㄴ
지도교사가 자유롭게 초성을 제시할 수 있다.

ㅂ	ㅈ	ㄷ	ㄱ	ㅅ
ㅁ	ㅏ	ㅐ	ㅔ	ㅍ
ㄴ	ㅏ	ㅕ	ㅕ	ㅓ
ㅇ	ㅣ	-	ㅜ	ㅠ
ㄹ	ㅋ	ㅌ	ㅊ	ㅍ
ㅎ	ㅗ	ㅘ	ㅙ	ㅚ

모음·자음 움직임 판



온몸으로 단어 만들기 활동 예시

활동 목표

- 평소 쓰고 있는 나쁜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중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교사 2~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야외 운동장(그 외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 준비물 : 단어표(A4 라벨지), 단어 뜻 카드
- 주요내용
 - 단어표 뜯기 놀이를 통하여 우리가 쓰는 언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
- 유의 사항
 - 신체 활동이므로 준비 운동으로 충분히 신체를 활성화해 서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진행자는 단어표에 쓰인 단어와 뜻을 사전에 익혀 두거나 답안지를 만들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모둠 나누기 및 준비 운동	10분	
전개	· 단어표 뜯기로 욕 어원 알기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시상 및 활동 소감 발표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 준비 운동

■ 진행방법

-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동 준비 운동을 하여 다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모둠을 4~5개로 나눈다.

오늘의 활동은 단어표 뜯기입니다. 그 단어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맞혀 봅시다.
일단 달리기를 해야 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몸을 풀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잡을 때 다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요.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전개 30분

■ 내용 : 단어표 뜯기

■ 진행방법

- 각자 단어표를 나누어 준다. 단어표에는 어떠한 단어가 적혀 있다. 지도 교사는 각 단어표의 뜻 카드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설명한다.
- 서로 다른 사람의 단어표를 빼앗기 위해서는 마주치면 일대일로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단어표를 가져올 수 있다.
-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라도 만약 다른 사람을 찾아 다시 마주치면 다시 승부하여 단어표를 되찾을 수 있다(단어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갖고 있는 사람과의 가위바위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단어표를 빼앗은 사람은 그 단어표의 단어의 뜻 카드도 찾아야 한다.
- 경기가 끝난 후 단어표의 뜻과 단어가 맞게 되어 있는지, 어느 모둠이 단어표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지 확인한다.

■ 준비물 : 단어표, 단어 뜻 카드

■ 유의 사항

- 지도 교사는 활동하기 전에 단어의 뜻이 적힌 종이를 잘 보이지 않게 활동 장소에 숨겨 둔다. 만약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바닥 곳곳에 놓을 수 있다.
- 종이에 꽁을 함께 섞어서 넣어 두면 더 좋다.
- 단어표 뜯기를 할 때 너무 과격하게 빼앗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여기 각자 단어표가 있습니다. 이 활동 범위에 그 단어들 뜻이 적힌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어와 뜻도 맞아야 하고 가장 많은 단어표를 획득한 모둠이 승리입니다. 단어표와 뜻이 맞지 않을 시 다시 잘 숨겨 두세요. 하지만 자신의 신체에 숨기는 것은 안 됩니다. 다치지 않게 주의하며 활동합시다.

■ 내용 : 욕 뜻을 확인시키고 우승 모둠 수상

■ 진행방법

- 각 모둠이 찾은 단어와 뜻이 정확한지 다 같이 확인한다. 만약 틀린 곳이 있다면 모두 함께 맞혀 본다.
-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우승 모둠에게 시상을 한 후 활동에 대한 느낌을 서로 나눈다.

■ 준비물 : 우승 모둠 선물(지도 교사가 임의로 준비)

▶ 이제 각자가 획득한 단어 뜻과 찾은 단어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1등 수상 후) 오늘 단어표 뜯기를 하면서 각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는데 어땠어요?
우리가 무심코 자주 쓰던 욕들의 본래 뜻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얘기해 봅시다. 게임으로 욕의 어원을 배워 보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의 진짜 어원이 무엇인지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대로 뜻을 알았을 거예요. 욕을 쓰는 대신 그 상황에 맞는 다른 대체어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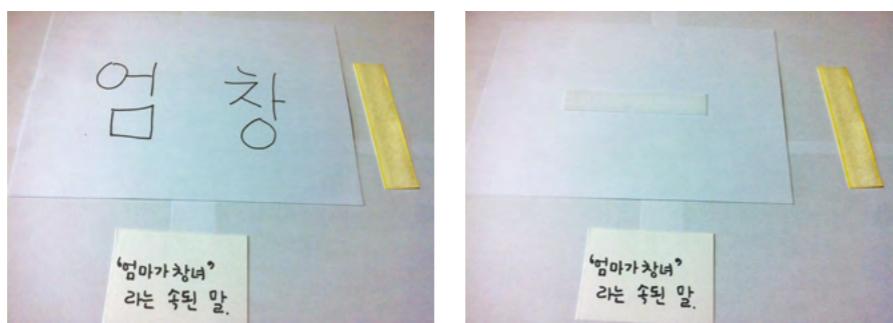
정리 10분

활동 자료

단어표 (단어)	뜻
엄창	'엄마가 창녀'라는 속된 말
맹세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
존나	'좆'이라는 남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서 파생됨
정말	거짓이 없이 말 그대로
많이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
지랄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구질구질	상태나 하는 짓이 깨끗하지 못하고 구저분한 모양
멍청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아가리	'입'을 속되게 부르는 말
병신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개새끼	하는 짓이 알집거나 더럽고 됨됨이가 좋지 아니한 남자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
니미	'너의 엄마'를 뜻함. '너의 엄마와 성교를 하다'의 속된 말
씨발	'씹할'이라는 어원이며 성교의 뜻을 가짐
제기랄	'제 얘기를 할'의 준말로 자기 어린 자식과 성관계를 가질 놈이라는 뜻을 가짐

단어 예시

|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및 네이버 국어사전



단어표와 그 뜻 카드 예시

활동 목표

- 언어로 느껴지는 정서를 공간적으로 확인하며 지각할 수 있게 한다.
- 자신과 타인이 듣기 원하는 말을 알아볼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중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교사 2~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없음
- 주요내용**
 - 고운 말, 나쁜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 변화를 시각화해 보기
- 유의 사항**
 - 고운 말, 나쁜 말을 할 때 장난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다하여 말하도록 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공간에 대한 설명	10분	
전개	고운 말(칭찬하는 말), 나쁜 말(욕설, 비난 등 공격하는 말)의 거리	3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자신의 공간에 대한 설명

■ 진행방법

- 지도 교사는 개인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 누군가 자신의 공간을 침범했을 때가 언제인지 모둠별로 나눈다.

개인 공간이란 방이나 교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책 제목을 보고 간다면 나의 공간을 침범 당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자신의 공간을 침범 당했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가 있나요?
(이야기 후) 오늘 활동은 언어 사용에 따라 느껴지는 자신의 공간 거리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30분

■ 내용 : 고운 말(칭찬하는 말), 나쁜 말(욕설, 비난)의 거리 알기

■ 진행방법

- 15명 이하로 두 모둠을 만든다.
- 지도 교사는 먼저 경험해 볼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지도 교사가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한다.
- 모두 손을 잡고 원을 만들고 지원자는 원 안 가운데 선다.
- 첫 번째로 손을 잡은 아이들은 가운데 아이에게 칭찬하는 말, 듣고 싶은 말, 좋은 말을 물어보고 원 밖에 있는 아이들은 그 말을 하면서 원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 원 안에 있는 아이는 다가오는 아이들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때 “그만”이라고 외친다. 나머지 아이들은 멈춰 서고 그 자리에 표시한다(스티커 등).
-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좋은 말 대신 듣고 싶지 않은 말, 나쁜 말(욕설, 비난하는 말 등)을 하면서 원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리에서 “그만”을 외친다.
-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했을 때 거리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가운데 아이에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느낌을 물어본다.
- 시간 여유가 있으면 모든 모둠원이 가운데 들어가 경험해 보고 시간 여유가 없을 경우 지원자를 뽑거나 지도 교사가 임의로 뽑아 경험하게 한다.

■ 준비물 : 스티커 또는 색 테이프

■ 유의사항

- 고운 말, 나쁜 말을 할 때 장난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다하여 말하도록 한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15명씩 두 모둠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눈 후) 다 같이 원으로 서 주세요. 옆 사람과 손을 잡아 주세요.

한 사람이 지원해서 원 안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원 안에 있는 친구는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예. 정말 사랑스러워.)

원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사랑스러워”라고 말하면서 한 발자국씩 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장난스럽게 놀리듯이 하면 안 되고 진심되게 말하면서 걸어 들어오세요.

원 안에 있는 친구는 친구들과의 거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그만”이라고 외쳐주세요. 친구들은 “그만”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멈춰 주세요. 다시 원상복귀한 다음 가장 듣기 싫은 ‘욕’이나 싫은 말도 좋은 말을 한 것과 같이 활동을 반복해 봅니다.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어떤 기분이었나요?

■ 내용 : 활동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나눈다.

■ 진행방법

- 좋은 말, 안 좋은 말을 하며 친구를 향해 다가갈 때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본다.
- 활동에 대한 느낌 및 소감을 각자 일지에 작성하도록 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경험 해 보았는데 말하는 입장일 때 기분은 어땠는지 모둠별로 나누어 봅시다.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느껴지는 거리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말로도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기도 하고 침범을 받기도 합니다. 항상 나만의 공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간도 나와 같다는 것을 알고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야기하도록 노력합시다.

정리 10분

활동 목표

- 평소에 담고 있던 감정들을 병 속에 담고 표출하도록 한다.
- 나쁜 말이 가진 색의 힘을 시각화하여 볼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중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교사 2~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투명색 빈 병(300ml), 물감, 물, 큰 통(투명 수조)
- 주요내용
 -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병 안에 외쳐보며 감정을 표출한다.
- 유의 사항
 - 물감과 물을 사용하므로 바닥이 많이 젖지 않도록 유의한다(걸레 준비).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기	10분	
전개	병 속에 나쁜 언어를 채우고 떠나 보내기	3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나를 화나게 할 때 하는 말들을 뇌 그림 속에 적어 본다.
- 진행방법
 - 평소에 내가 화가 날 때, 스트레스 쌓였을 때 자주 하는 말들을 뇌 그림에 적어 본다.
- 준비물 : 뇌 그림, 펜

이번 활동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또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어떤 말로 그 기분을 표현하나요?
그 말들로 나의 머릿속을 채워 보겠습니다.

- 내용 : 빈 병에 감정을 표출한다.

- 진행방법
 - 한 사람에 한 개씩 빈 병을 나눠 준다.
 - 각자 뇌 그림 속에 적은 단어들을 빈 병에 입을 대고 외쳐 보도록 한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작은 소리로 말하게 하고 큰소리로도 외쳐 본다.
 - 빈 병에 충분히 외쳤으면 병의 1/3 정도 물을 채운다.
 - 자신이 빈 병에 넣은 말들을 표현할 색을 선택한다. 담은 언어의 상징적 색을 생각한 후 물감 색을 선택한다.
 - 물병에 물감을 짜고 뚜껑을 닫은 후 화가 났을 그 상황을 생각하며 강하게 마음껏 흔들어 본다.
 - 물감과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흔든다.
 - 각각 어떠한 색들이 나왔는지 살펴본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운데 큰 통(수조)에 다 쏟아 부어 섞이게 한다.

- 준비물 : 빈 병, 물, 물감

- 유의 사항
 - 물과 물감을 사용하므로 바닥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도입 10
판

전개 30
판

나의 머릿속에 적은 말들을 이제 빈 병에 직접 말해 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해 보고, 차차 소리를 크게 하며 병 속에 목소리로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외쳐 봅시다.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외쳐 봅니다.
충분히 병 속에 말을 담았으면 이제 물을 병의 2/3 정도 붓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담은 말들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인지 한 번 생각해 보고 물감을 선택하세요.
여러 색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 색을 골라도 됩니다.
물감을 병 속에 넣고 강하게 흔들어 봅시다. 물과 물감이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온 몸으로 흔들면서 표현해 봅시다.
이제 충분히 섞인 것 같으면 옆의 친구들과 병 속 색이 어떤지 비교해 봅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병 속 말들을 바가지에 부어 봅시다.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의미 전달 및 느낌 나누기

■ 진행방법

- 지도 교사는 탁한 색의 물이 담긴 바가지를 보여주며 의미를 전달한다.
- 4~5명씩 모여 활동의 느낌을 서로 나누고 대표가 앞에 나와 발표한다.

병 속에 화가 난 감정의 언어, 듣기 싫은 언어, 욕들의 색을 담았습니다. 각각의 색은 달랐지만 이렇게 한 곳에 담아보니 검은 색으로 바뀌었네요. 화를 담은 말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모이니 색이 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듯 듣기 거북한 말의 힘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4~5명씩 모여서 이번 시간 활동에 대한 느낌을 나누어 보고 대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료



뇌 그림 예시



❶ 300ml 빈 병을 준비한다. 뇌 그림 속에 적힌 감정들을 빈병에 외친다.

❷ 외친 말에 어울리는 색으로 표현한다.

활동 목표

-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말 속에 담긴 인격을 알려 준다.
- 함부로 뱉은 말은 지워지지 않음을 알려 준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중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교사 2~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흰색 양초, 종이, 물감, 붓, 물

주요내용

- 양초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적고 그 위에 자화상을 그린다.

유의 사항

- 너무 굵지 않은 얇은 초를 준비하고 하나를 반으로 잘라 글쓰기 편하게 마련한다.
- 자화상을 그리기 힘들어 하면 자신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대체해도 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내용 소개	10분	
전개	· 자화상 그리기 · 초로 자신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적기 · 위에 자화상 그리기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활동 느낌 나누기	10분	

활동 내용

- 내 용 : 상황에 따라 나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진행방법

- 지도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장소나 대상으로 인하여 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다.
또한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 하는지 물어본다.

유의 사항

- 학생이 대답을 기피할 경우 지도 교사는 다른 학생을 지목하면서 물어봐도 된다.

오늘은 말의 힘을 주제로 활동을 하려 합니다.

평소에 비밀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죠? 장소나 대상, 상황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한 명씩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 용 :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 양초에 쓴 후 자화상 그리기

진행방법

-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하는 말을 솔직하게 양초로 적어 본다.
예시) 1.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때리며 깨을 때
2. 친구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3. 평소에 친구를 부를 때(이름, 애칭, 별명 등)
4.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을 때
5.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를 치고 그냥 갈 때

- 지도 교사는 꼭 상황에 맞춰 쓰지 않고 자신이 화가 났었던 대상, 그 대상에게 하고픈 욕, 사과하고 싶은 대상 등을 써도 된다고 알려 준다.

- 충분히 쓴 후 양초로 적은 종이 위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다.

- 자화상을 그리기 힘들어 한다면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그려도 된다.

- 준비물 : 양초(너무 굵지 않은), 흰색 종이(16절지 또는 8절지), 물감, 붓, 물통

도입 10
분

전개 30
분

정리 10
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다들 가지고 있네요. 양초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신 안에 있는 말들을 다 적어 보세요.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적어도 되고,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것을 적어도 됩니다.
화내고 싶은 대상에게 또는 사과하고 싶은 대상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적어 볼게요. 양초로 적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적어도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쓰는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다 적은 후).
충분히 적었나요? 그 위에 자신의 얼굴인 자화상을 그려보아요. 만약 그림을 못 그려
자화상을 그리기 어렵다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을 그려도 됩니다.

■ 내용 :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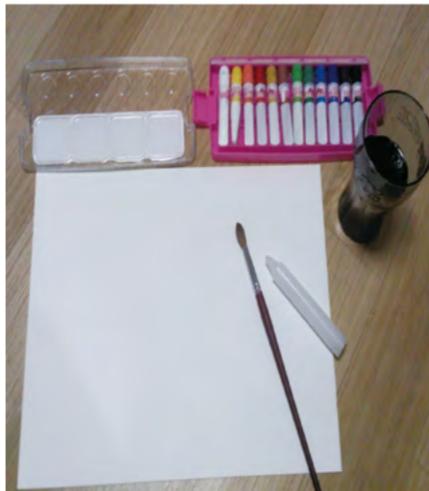
■ 진행방법

- 다른 친구들 그림을 한 번 돌아 본다.
- 지도 교사는 오늘 활동을 정리한 후 활동의 느낌을 한 사람씩 물어본다.

활동 후 느낌이 어땠는지 나누어 봅시다.

자신의 얼굴과 친구들 얼굴이 어떠한가요? 초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지워지지 않고 각자가 그린 자화상에 남아 있네요. 그 말 위에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죠?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뱉은 말은 우리 자신의 얼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은 욕할 때의 표정이, 매일 화내는 사람은 화내는 얼굴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긍정적인 얼굴로 나타나게 되겠죠? 내가 매일 무심코 뱉은 말들이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남을 수 있고, 또 나의 말들이 결국 나의 인격을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어요.

활동 자료



❶ 준비물을 준비한다.



❷ 초를 잡기 편하게 자른 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는다.



❸ 양초로 적은 종이 위에 자화상을 그린다.



❹ 완성된 모습

활동 목표

- 청소년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욕을 물리치기 위한 노래를 만들어 봄으로써 언어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중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교사 2~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광고 노래, 스피커, 시상 선물
- 주요내용
 - 기존 광고 노래를 욕을 퇴치하는 주제로 개사하기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근래 방영되는 텔레비전 광고나 광고 노래 알아보기	10분	
전개	욕을 물리치는 주제로 기존 광고 노래 개사하기	3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근래에 방영되는 텔레비전 광고나 광고 노래 알아보기

- 진행방법

- 모둠을 4~5개로 나눈다.
- 모둠별로 근래에 텔레비전 광고나 광고 노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 후 각 모둠별로 하나씩 선택한다.

요즘 유행하는 광고 노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4~5개의 모둠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에 말한 광고 노래를 사용해도 좋고 모둠별로 다시 의논해서 하나의 광고 노래를 선택하세요.

- 내용 : 욕을 물리치는 광고 노래 만들기

- 진행방법

- 모둠별로 각자가 원하는 기존의 광고 노래를 '욕을 물리치는 주제'로 개사한다.
- 모둠별로 발표를 한다.
- 자신의 모둠이 아닌 모둠 중 잘한 모둠에 투표한다.
- 지도 교사는 가장 많이 나온 모둠에게상을 준다.

모둠별로 광고 노래를 정했나요? '욕을 물리치자'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개사하여 광고 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만든 후) 이제 각 모둠별로 발표하겠습니다. 다 보고 난 후 자기의 모둠이 아닌 모둠 중 가장 잘하는 모둠에 투표할 테니 모두들 조용히 잘 듣고 평가해 주세요.

도입 10
분

전개 30
분

정리 10 분

■ 내용 :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모둠에게 시상

■ 진행방법

-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모둠 발표 및 시상

- 활동에서 느낀 점, 직접 욕을 물리치는 공익 광고를 만든 경험 등 활동 느낌 나누기

■ 준비물 : 선물(기관, 지도 교사 별로 준비)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뽑은 일등은 어느 모둠일까요?

(발표 후) 1등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모두 박수.

직접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본 경험은 어떤가요? 이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만들 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직접 광고 노래를 개선함으로써 언어문제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신들이 만든 광고 노래를 생각하며 언어 개선에 앞장서 봅시다.

활동 자료

(광고 노래 개사 예시)

KT LTE광고 : 빠름 빠름 빠름 LTE WARP 올레!

- 개사 : 좋음 좋음 좋음 옥보단 내 이름 좋아!(울동과 함께)

활동 목표

- 포스터 만들기를 통해 바른 언어생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앞으로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질 것을 다짐한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중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교사 2~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포스터 예시, 수성펜, 대야, 물, 종이

■ 주요내용

-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포스터 만들기
- 자신의 언어 습관 중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기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소개	10분	
전개	· 언어 개선 광고 포스터 만들기 · 새로운 언어 습관을 위한 약속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전개 30분

광고 포스터 만들기 및 다짐 8차시

정리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각종 포스터 소개
- 진행방법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 포스터를 소개한다.

우리 주변에서 공익 광고 포스터를 본 적 있나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여기에 몇 개 사회적 문제 예방 포스터가 있습니다. 살펴본 후 우리도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 내용 : 고운 말 바른 말 주제로 포스터 만들기 및 다짐

■ 진행방법

- 모둠별 고운 말 바른 말 주제로 문구를 만들고 포스터를 만든다. 
- 결단식 
-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린 그림 위에 자신이 이제부터 쓰지 않기로 한 욕을 수성펜으로 적는다.
- 그림을 물 안에 넣어 욕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 준비물 : 수성펜, 대야 물, 종이

 모둠별로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주제는 청소년 언어 문제입니다.

 (만든 후) 한쪽 벽에 전시해 봅시다.

(전시 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의 얼굴을 그리고 그 위에 앞으로 쓰지 않을 욕 하나를 수성펜으로 써 주세요.
다 그린 사람은 앞으로 나와 그림을 물 안에 넣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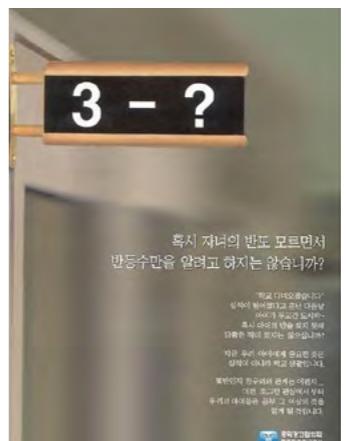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 진행방법

- 지도 교사는 우리의 얼굴에서 욕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앞으로 나의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독려한다.
- 활동에 대한 느낌, 결단한 다짐 등 함께 나눈다.

 우리의 얼굴에서 욕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나요? 앞으로 각자가 쓰지 않기로 결정한 욕이 물에 녹아 없어진 것과 같이 생활 속에서도 쓰지 않도록 노력해요.
결단한 다짐이나 포스터를 만들면서 느낀 점을 한 명씩 말해 봅시다.

활동 자료



공익 광고 포스터 예시

04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고등학생용

- 103 우리의 언어 습관 왜 문제일까? (1차시)
- 108 소통이 왜 어려울까? (2차시)
- 114 어떤 말을 해야 하나? (3차시)
- 117 뜻을 알리자! (4차시)
- 123 고운 말 닦싸움 (5차시)
- 127 영화 바꿔보기 (6차시)
- 131 예쁜 말 베개 만들기 (7차시)
- 135 다섯 손가락 다짐 만들기 (8차시)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차시별
프로그램 구성**

차 시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1	자기 점검	우리의 언어 습관 왜 문제일까?	우리가 많이 쓰는 나쁜 말과 듣고 싶은 고운 말을 적은 그래프 만들어보고 영상을 통해 나쁜 언어 습관의 문제 점 알기
2	문제 확인	소통이 왜 어려울까?	모양 맞추기와 모형 쌓기 등 간단한 의사소통 놀이를 통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직접 체감해 보기
3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자음과 모음이 적힌 나무토막 빼기로 갈등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장 만들어 보기
4	언어적 측면	뜻을 알리자!	카드 뒤집기로 우리가 쓰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개선해야 하는 말의 뜻을 알리는 홍보물 만들기
5	정서적 측면	고운 말 닦싸움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비속어를 대신할 고운 말을 달걀에 적은 후 닦싸움으로 상대방의 달걀을 빼앗아 오는 활동
6	사회적 측면	영화 바꿔보기	욕설이 나오는 영화 속 장면을 순회해 보고 순화한 장면을 역할극으로 꾸며 보기
7	마무리	예쁜 말 베개 만들기	투명 비닐에 내가 듣고 싶거나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고운 말들 적은 베개와 고운 말 카드 만들기
8		다섯 손가락 다짐 만들기	우리가 개선해야 할 가장 나쁜 말 순위를 정하고, 손가락 그림에 자신의 언어 개선 다짐 적어 보기

활동 목표

- 참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나쁜 말과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고운 말을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언어 습관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 교사 3~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 비 물 : 영상 자료, 노트북, 영상 투사기(빔), 스크린, 접착 메모지, 4절 색지, 사인펜 등
- 주요 내용
 - 우리가 많이 쓰는 나쁜 말과 듣고 싶은 고운 말 점착 종이에 적어 그래프 만들기
 - 'EBS 다큐멘터리 욕해도 될까요? 1부 욕, 뇌를 공격하다' 일부 상영

유의 사항

- 사전에 모둠을 5~6개로 구성한다.
- 서로 처음 만났을 경우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 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영상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 분	시 간	비 고
도입	· 활동 소개 및 설명	10분	모둠 만들기
전개	· 우리의 언어, 순위 그래프로 만들기 · 청소년 언어문화, 왜 문제인가?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프로그램 내용 및 활동 과정 설명

■ 진행방법

- 전체 인원을 고려하여 모둠을 5~6개로 나눈다.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준다.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나쁜 말들을 청소년 스스로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프로그램임을 설명한다.



평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돌아보면 욕설이나 비속어 그리고 은어 등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우리에게 예쁜 말 고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이 욕설이나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진단해 보고, 스스로 언어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어떤 나쁜 말들과 고운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10분

■ 내용 : 우리의 언어, 순위 그래프 만들기

-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나쁜 말을 접착 종이에 적어 도화지에 그래프로 만들기
- 내가 듣고 싶은 고운 말을 접착 종이에 적어 도화지에 그래프로 만들기

■ 진행방법

- 각 모둠에 4절 도화지 1장과 접착 종이(1인 3장)를 나눠 준다.
- 나누어 준 접착 종이에 평소 자신이 쓰는 나쁜 말 3가지를 적도록 한다.
- 모두 적은 팀은 4절 도화지에 그래프의 X축과 Y축을 그린다.
- 접착 종이를 그래프 속에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붙이며 겹치는 것이 있으면 위로 쌓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순위를 매겨 본다.
- 다른 색상의 접착 종이와 도화지를 나누어 주고 ‘내가 듣고 싶은 고운 말’을 앞의 방식과 같이 그래프를 만들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순위를 매겨 본다.

■ 준비물 : 접착 종이, 4절 도화지 2장, 사인펜

■ 유의사항

- 모둠 구성 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접착 종이를 1인당 3장 이상씩 준다.
- 접착종이의 크기를 고려하여 도화지를 준비한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나쁜 말은 무엇인가요?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욕설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만든 신조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나쁜 말들을 접착 종이에 하나씩 적어본 후에 모둠 친구들과 함께 순위를 매겨 보세요. 막대그래프처럼 만들면 어떤 말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다 되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평소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이나 부모님 또는 어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적어 순위를 매겨 봅시다. 따뜻한 말이나 칭찬 등 평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고운 말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전개 20분

■ 내용 : 잘못된 언어 습관, 왜 문제인가?

- 영상 자료를 통해 잘못된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 영상 자료 ‘EBS 다큐멘터리 욕해도 될까요? 1부 욕, 뇌를 공격하다’ 활용 가능

■ 진행방법

- 사전에 설치해 놓은 영상 투사기(빔)와 스크린을 활용하여 영상을 함께 본다.
- 영상을 보며 참가 청소년들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준비물 : 노트북, 영상 투사기(빔), 스크린, 영상 자료

■ 유의사항

- 영상 자료의 원본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여 준다.

영상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까? 욕을 많이 할수록 욕에 둔감해진다는 실험 결과를 보니 어떤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욕설 사용 빈도가 높은 친구들이 어휘력이 떨어지고 무계획적이며 충동적이라는 결과 또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욕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어휘는 점점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욕설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낮아지고 나아가 인지능력까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욕설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언어 습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



'EBS 다큐멘터리 욕해도 될까요? 1부 욕, 뇌를 공격하다'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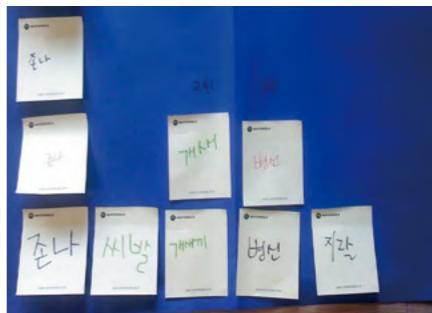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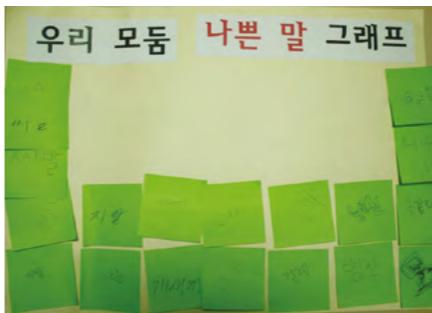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 각 모둠별로 결과와 활동에 대한 소감 발표하기
- 진행방법
 - 각 모둠별 그래프를 앞에 나와 다른 모둠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발표해 보도록 한다.
 - 각 팀에서 대표가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발표해 본다.
- 유의 사항
 -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각 모둠의 결과를 합산하여 그룹 또는 반 전체의 그래프로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완성 후, 각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어떤 말이 나쁜 말 1위에 올라왔는지 발표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말이 고운 말 1위에 올라왔는지도 발표해 봅시다.
모둠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이 느끼는 '나쁜 말'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고운 말'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었지요?
특히 여러분이 1위로 발표한 나쁜 말들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운 우리말로 순화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할 언어 습관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이 '나쁜 말'들은 줄이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고운 말'은 친구들과 서로 더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활동 자료



접착종이로 만든 '나쁜 말' 순위 그래프 예시

Memo

활동 목표

- 자신의 언어 습관을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 또래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평소 나쁜 언어 습관을 돌아볼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 교사 3~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A4 크기의 종이, 특정한 모양 혹은 특정 그림 (모둠 수만큼), 초시계, 기록지, 필기도구
- 주요 내용
 - 친구와 등 맞대고 모양 맞추기
 - 준비된 모형 쌓기를 통해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 돌아보기
- 유의 사항
 - 놀이 시작 전 모둠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각 모둠원이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과정임을 설명해 주며,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소개 및 설명	10분	
전개	· 친구와의 소통, 잘 하고 있나요? · 집단에서의 소통, 잘 하고 있나요?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 내용 및 과정 설명

-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언어의 중요성과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들려주고, 앞으로 진행되는 두 가지 활동을 통한 목표 전달하기

오늘은 여러분이 대화를 나눌 때 느끼지 못하는 소통의 문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속어나 은어 등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말을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달리 의견이 잘못 전달되어 난처해진 적은 없나요?

친구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들과의 대화에서는 어떤가요?
내 생각과 달리 적절한 표현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나요?
(친구들의 경험담을 듣는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내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오늘 두 가지 놀이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그동안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소통의 문제점들을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 내용 : 친구와의 소통, 잘하고 있나요?

- 옆 사람과 등을 맞대고 서서 한 명은 종이를 접고 찢으며 설명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설명을 들으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기

■ 진행방법

- 두 사람씩 짹을 지어 등을 맞대고 선다.
- 두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준다.
- 둘 중 한 사람은 종이를 접고 찢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부분을 찢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
- 설명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여 아래의 3단계로 진행해 본다.
 - 1단계 : 한 사람은 설명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한다.
 - 2단계 : 한 사람은 설명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진다. 설명하는 사람은 질문에 대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다.

도입 10
판

전개 15
판

소통이 왜 어려울까? 2차시

- 3단계 : 두 사람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준비물 : A4 크기의 종이(인당 3장씩)

■ 유의 사항

- 각 단계별로 새로운 종이를 준다.
- 각 단계별로 새로운 종이를 준다. 각 단계별로 진행 후 서로의 모양이 얼마만큼 똑같이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3단계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때그때 발표해 보도록 한다.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지 못했을 때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점이 달랐나요? 내 마음과 생각은 A인데, 상대방은 B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어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일대일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소중함을 느껴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여러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 : 집단에서의 소통, 잘하고 있나요?

- 모둠 친구들이 순서를 정하고 정한 순서대로 앞쪽에 있는 모양을 관찰하고 모둠으로 돌아가 설명하여 앞쪽과 똑같이 완성하기

■ 진행방법

- 지도 교사가 사전에 특정한 모양 또는 그림을 모둠별로 미리 준비해 둔다.
- 5~6개의 모둠을 만들고 모둠장과 기록자 역할을 할 친구를 한 명씩 뽑는다.
- 기록자를 제외하고 모둠장과 모둠원들은 앞쪽의 특정한 모양을 관찰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한다. 단, 첫 번째 관찰은 모둠장이 하고 관찰 후에는 전략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한 순서대로 모둠원들이 앞쪽에 있는 특정한 모양을 30초간 보고 모둠으로 돌아와 2분 30초간 친구들에게 어떤 모양인지 말로 설명한다.
- 5회 ~ 10회 정도 관찰 기회를 주고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관찰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 기록자는 활동 진행 중 모둠원들의 대화나 의사소통 과정을 기록지에 기록한다.

전개 20
분

- 준비물 : 나무토막이나 블록 혹은 칠교 등을 활용하여 만든 특정한 모양 또는 특정 그림(모둠 수만큼), 초시계, 모둠별 의사소통 기록지, 필기도구

■ 유의 사항

- 모양이 아닌 그림 그리기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모양의 모서리에는 순우리말 단어를 적어 놓고, 단어가 적혀 있는 위치와 단어도 정확히 옮기도록 하는 등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 모양을 똑같이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찰 후 설명하고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모둠원들이 기록지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의사소통이 되도록 기록자에게만 관찰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 준다.
- 영상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기록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진행 과정을 녹화하여 활동이 마친 후 다함께 모니터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시작하기 전에 모둠장과 기록자를 각각 한 명씩 뽑겠습니다.

모둠장과 기록자를 제외한 모둠원들이 순서를 정해 앞으로 나와 30초간 앞쪽의 모양을 보고 모둠으로 돌아가서 2분 30초 동안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여 앞쪽의 완성된 모양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관찰자는 모둠장이고 그 이후부터는 순서를 정하여 앞으로 나와서 관찰하세요. 총 6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각 모둠은 첫 번째 관찰 후, 서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앞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만들어 봅시다.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 의사소통 관찰 결과 및 활동 소감 발표

■ 진행방법

- 각 모둠별로 주어졌던 특정 모양과 모둠원이 완성한 모양을 비교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 다음으로 기록자들이 모둠원들을 관찰한 결과를 발표한다.
- 모둠별로 만든 모양의 결과와 기록자의 발표를 토대로 각 모둠별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본다.

■ 유의 사항

- 활동이 끝난 후 반드시 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정리 10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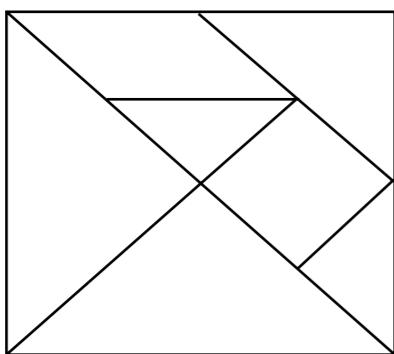
(먼저 모둠 장들의 결과 발표 후)

- 간단한 모형이지만 그대로 설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모형을 보고도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간 내에 완벽하게 같은 모양으로 완성한 모둠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완성 모형과 완전히 다르게 만든 모둠이 있나요? 그런 모둠들부터 기록자가 모둠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관찰한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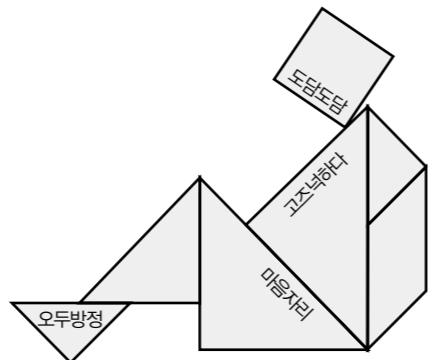
(기록자 발표 후)

- 내가 말한 것을 친구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무척이나 답답하죠?
의사소통이 원활했던 모둠과 그렇지 못했던 모둠 간의 결과물의 차이도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두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개선해야 할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나요? 특히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했지만 주로 쓰고 있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모둠은 의사소통이 잘 된 모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활동 자료



112 칠교 모양. 종이에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3 완성 모양 모습 예시

■ 의사소통 칠교 놀이 예시

- 모형을 칠교로 활용할 경우 완성 모양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구 분	이름	모둠명	기록자
		의사소통 시 주의 사항	
모둠대표			
모둠원1			
모둠원2			
모둠원3			
모둠원4			
모둠원5			

모둠별 기록지 예시 – 비속어나 욕설, 유행어 등을 사용한 횟수도 기록해 본다.

1장

초등학교 저학년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2장

초등학교 고학년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3장

중학생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4장

고등학생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5장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활동 목표

- 갈등 상황 속에서의 언어 습관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다.
- 다양한 언어표현의 어려움을 통해 언어 습관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 교사 3~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나무토막 쌓기(보드게임용 젠가), 상황 쪽지

■ 주요 내용

- 평소 갈등 상황에서 하는 말을 나무토막에 적힌 기본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여 만들기

■ 유의 사항

- 앞에서 진행하는 지도 교사를 의식하지 않고 참여 청소년들이 평소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나무토막 쌓기는 사전에 각 나무토막에 자음, 모음 적어 한 모둠당 54조각 이상 준비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드게임용 나무토막 쌓기 한 블록이 54조각부터 있음).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활동 소개 및 설명	10분	
전개	상황별 나무토막 빼기로 문장 만들기	30분	
정리	활동 내용 정리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 내용 및 과정 설명

- 청소년들이 화가 나거나 당황했을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며 함께 공감해 보고 앞으로 진행되는 두 가지 활동의 목표 전달하기

▶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활동을 통해 살펴봅시다.

친구들과 사소한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은 ‘지랄’, ‘병신’, ‘찐다’, ‘존나’ 등과 같은 비속어나 은어들을 많이 사용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나요?(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는지 의견 들어보기)

준비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평소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마음껏 이야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 내용 : 상황별 나무토막 빼기로 문장 만들기

- 자음과 모음이 적힌 나무토막을 쌓아 놓고 갈등 상황에서 하는 말이 적힌 나무토막을 빼서 문장 만들기

■ 진행방법

- 5~6개의 모둠으로 구성한다.
- 각 모둠별로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힌 나무토막(젠가)들을 나누어 준다.
- 나무토막에는 자음 모음 이외에도 만능패(조카)로 쓸 수 있는 조각도 20개 정도 넣어 주어 부족한 자음이나 모음을 대신 할 수 있다.
- 나무토막을 자유롭게 쌓은 뒤 사전에 준비한 갈등 상황이 담긴 쪽지를 모둠별로 한 장씩 가져가도록 한다.
- 모둠원들이 함께 쪽지를 읽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을 쌓여 있는 나무토막에서 하나씩 빼서 만들어 본다.
- 갈등 상황은 5단계까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 단계별로 3~5분의 시간을 준다.
- 예시 1단계 : 복도에서 친구와 부딪쳐서 들고 있던 과자를 쏟았다.
2단계 :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서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
3단계 : 시험공부 열심히 하고 들어왔는데 게임방 갔다 왔느냐고 엄마가 의심한다.
4단계 : 컴퓨터 게임 중에 정전이 되었다.

도입 10
판

전개 20
판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 모둠별 결과 및 활동 소감 발표하기

■ 진행방법

- 각 모둠별 대표 1~2명이 활동 소감을 발표해 본다.

(활동이 끝난 후 각 모둠별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장을 만들었는지 발표해 본다)

제한된 자음 모음으로 문장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텐데, 창의력을 발휘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 상황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만들 때, 단순히 나무토막에 적힌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부족해서 만들지 못한 것일까요? 혹은 다른 표현으로도 충분히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 대체 표현을 알지 못해서 만들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었길 바랍니다.

5단계 : 내가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나에 대해 혐담하는 것을 들었다.

- 쌓은 나무토막이 5단계까지 무너지지 않는 모둠이 우승이다.
- 준비물 : 상황 쪽지, 한글 자음 모음이 적힌 나무토막(보드게임용 젠가/모둠 수만큼)
- 유의사항
 - 자유롭게 평소 쓰던 말을 만들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 단, 만든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글자 제한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예시 다섯 글자 이상으로 말하기 등

각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모둠원들과 각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상의해서 나무토막에 있는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무토막에는 만능패(조커)도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여러분이 쓰는 말을 만들되, 필요한 자음과 모음을 쌓아 놓은 나무토막에서 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활동 목표

- 평소 우리가 쓰고 있는 나쁜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나쁜 말의 뜻을 알리고 함께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 교사 3~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단어 카드(A4 색지 1/4크기)들, 흰색 전지 2장, 접착용 투명 테이프, 색상지, 매직, 우드락, 칼, 풀 등
- 주요 내용
 - 카드 뒤집기 활동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의 뜻 알아보기
 - 우리가 자주 쓰는 비속어, 은어 등 청소년 말들 중 개선해야 할 말들을 찾고 그 뜻을 알리는 홍보물 만들기
- 유의사항
 - 지도 교사는 카드 속 단어와 그 뜻을 사전에 익혀 두거나 답안지를 만들어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한다.
 - 단어 카드는 코팅하지 않고 색지에 프린트하여 사용해도 좋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소개 및 설명	10분	
전개	• 카드 뒤집기로 단어 – 뜻 짚을 찾아라!! • 친구들의 나쁜 말, 그 뜻을 알려라!!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 용 : 활동 내용 및 과정 설명

-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비속어, 은어의 뜻을 간단한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그 말을 직접 개선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는 활동의 목표를 전달

지금까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 문제점들을 직접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활동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활동 자료



카드 뒤집기로 단어-뜻 짹을 찾아라! 활동 예시



■ 내 용 : 카드 뒤집기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의 뜻 알기

■ 진행방법

- 노란색 카드(색지)에는 참여 청소년들이 평소 많이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프린트하여 준비한다.
- 초록색 카드(색지)에는 그 단어들의 뜻을 프린트하여 준비한다.
- 진행 전, 전체를 2개의 팀으로 나누고 둑근 큰 원으로 앉는다.
- 단어 카드(색지)를 두 묶음 준비하여 양쪽 팀 원 안에 하나씩 뒤집어 놓는다.
- 칠판에 흰색 전지를 양쪽으로 붙여 놓는다.
- 제한시간 5분 동안 카드를 뒤집어 노란색에 있는 단어와 뜻이 맞는 초록색 카드를 앞쪽 전지에 접착용 투명테이프로 찾아 붙인다.
- 제한 시간이 지난 후 전지에 붙은 각 모둠의 결과물을 보며 단어들의 뜻을 바르게 맞추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준비물 : 단어 카드(A4 색지 1/4크기)들, 흰색 전지 2장, 접착용 투명테이프

■ 유의 사항

- 인원이 많을 경우 모둠별로 단어 카드(색지) 묶음을 준비하여 진행하면 된다.
- 사전에 단어 카드를 만들 때 이전 차시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수집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평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뜻을 간단한 활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색지 카드를 뒤집지 말고 봐 주세요.

우선 노란색 카드에는 여러분이 평소 많이 쓰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순화된 단어들도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카드에는 그 단어들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한 시간 5분 동안 노란색 카드 1장과 초록색 카드 1장의 짹을 맞춥니다. 짹을 맞춘 것은 앞의 전지에 나란히 순서대로 붙여 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정확한 짹을 맞추는지 봅시다.

뜻을 알리자!
4차시

전개 10분

1장

초등학교 저학년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2장

초등학교 고학년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3장

중학생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4장

고등학생용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부록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제한 시간이 끝난 후)

그럼 여러분이 맞힌 답과 정답을 맞혀 보겠습니다.

각 모둠별로 몇 개나 맞혔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단어와 단어의 뜻이 많이 다르지는 않았나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의외의 뜻을 가진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내용

많이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 양이 많음.
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엇을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말로 '좆'이라는 남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서 파생됨.
들키다	숨기려던 것을 남이 알게 됨.
망할	못마땅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하여 저주의 뜻으로 이르는 말.
지랄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맹세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엄창	내기나 약속할 때 이것을 견다고 말하는데, '엄마가 창녀'라는 뜻의 속된 말.
정말	거짓이 없이 말 그대로임, 또는 그런 말.
씨발	'씹힐'이라는 어원이며 성교의 뜻을 가짐.
헐	흔히 황당할 때 쓰이나 자기 말이 무시되었거나, 화가 날 때, 할 말이 없을 때, 짜증날 때 등 여러 곳에 쓰이는 말.
와	뜻밖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소리 '우아'의 준말.
뽀록	일본어 '보로'에서 온 잘못된 말로 '허술한 곳', '결점'의 의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쓰임.

■ 내용 : 친구들의 나쁜 말, 그 뜻을 알려라!

- 우리가 자주 쓰는 비속어, 은어 등 청소년 말들 중 개선해야 할 말들을 찾고 그 올바른 뜻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기

■ 진행방법

- 각 모둠별로 앞서 진행한 카드 게임에서 나온 비속어, 은어 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단어를 하나씩 선택한다.
- 준비된 색상지와 문구 용품을 활용하여 그 단어의 올바른 뜻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든다.
- 단순히 뜻만 알리기보다 모둠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그 말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만들어 함께 홍보하도록 진행한다.

■ 준비물 : 색상지, 매직, 우드락, 칼, 풀 등

■ 유의사항

- 각 모둠별로 선택하는 단어가 겹쳐지지 않도록 조율하여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한다.
- 만들어진 대체 단어나 표현은 지도 교사가 각 모둠별로 점검해 주도록 한다.

앞서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뜻을 알고 나니 어떤가요?

뜻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친구들을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높인 문구 용품을 활용하여 모둠원들이 함께 고른 단어의 뜻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 주세요. 형식은 자유지만 다른 친구들이 알아보기 쉽고 눈에 띄게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모둠원들과 논의하여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지켜 나간다면 언어 개선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 10분

■ 내용 : 모둠별 활동 소감 발표

■ 진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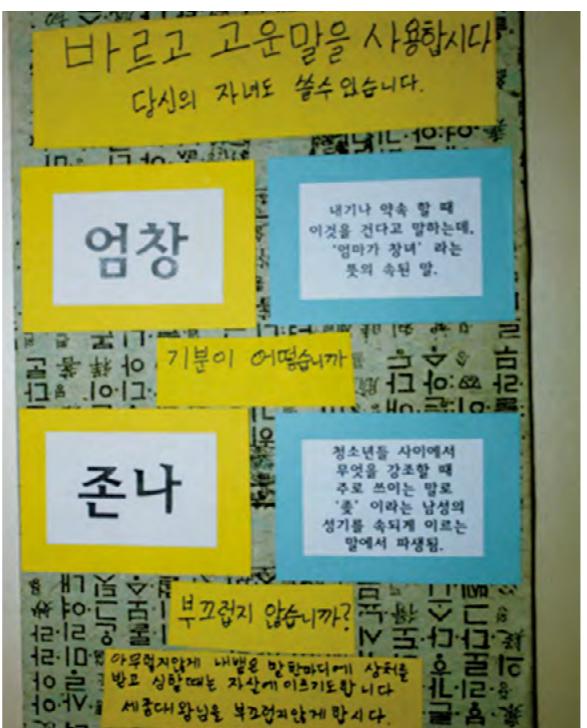
- 각 모둠별 대표 1~2명이 활동 소감을 발표해 본다.

여러분이 습관처럼 뜻도 모르고 쓰고 있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여러분의 어휘력을 떨어뜨리고 무계획성과 충동성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변화들을 앞으로의 활동으로 느껴 본다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홍보물이 외부 게시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언어 개선 노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활동 자료



뜻 알리기 홍보물 예시

고운 말 닭싸움

5차시

활동 목표

- 나쁜 말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 고운 말을 사용할 때의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 교사 3~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종이, 사인펜, 삶은 달걀 30개(혹은 풍선)
- 주요 내용

- 평소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친구들과 나누고 비속어, 욕설을 대신할 수 있는 고운 말을 달걀에 적어 보기
- 암탉 지키기 닭싸움으로 고운 말 달걀 뺏기

■ 유의 사항

- 시작 전 의자와 책상을 치우고 바닥에서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삶은 달걀을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풍선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소개 및 설명	10분	
전개	· 고운 말을 품은 달걀 만들기 · 고운 말 닭싸움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 내용 및 과정 설명

- 나쁜 말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나쁜 말 대신 듣고 싶은 '고운 말'을 나눠 보는 활동의 의미 소개

여러분은 어떨 때 욕설이나 나쁜 말을 사용하나요?

- 최근 청소년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욕을 언제 제일 처음 사용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빴을 때 사용하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 점검해 보고, 그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잠시 되돌아봅시다. 오늘 아침에 눈뜰 때 기분은 어떠하였는지, 등굣길은 어떠하였는지, 가장 짜증 나고 화가 나서 욕이 나왔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가만히 떠올려 봅시다(3~5분 정도 생각하고 쪽지를 적을 시간을 준다).

▶ 그럼 어떤 상황과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지도 교사가 쪽지 중 몇 개를 골라 큰 소리로 읽어 준 뒤 공감해 준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쁜 말을 사용하나요? 그리고 친구에게 어떤 고운 말을 해 주면 좋을까요? 혹은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나눠 드린 삶은 달걀에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갈등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나쁜 말들을 사인펜으로 적어 봅니다. 이때 5개의 달걀에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듣고 싶거나 들려 주고 싶은 고운 말 5개를 적어 주세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고운 말이 무엇일지 모둠원들과 잘 논의해서 적어 주세요.

■ 내용 : 고운 말을 품은 달걀 만들기

- 평소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게 되는 감정적 상황을 친구들과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고운 말을 달걀에 적어 보기

■ 진행방법

- 모두에게 종이를 나눠 주고 최근에 사용했던 비속어나 욕설 등과 그 말을 쓸 때의 상황을 쪽지에 한 가지씩 익명으로 적도록 한다.
- 쪽지를 접어서 한 바구니에 모은다.
- 전체를 15명씩 두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원의 수만큼 삶은 달걀을 나누어 준다.
- 지도 교사가 앞서 적은 여러 쪽지 중 하나를 골라 하나씩 읽어 주며 함께 공감한다.
- 이때, 참가 청소년들은 모둠원들과 논의하여 비속어나 욕설을 쓰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듣고 싶은 고운 말들 5가지만 정해 삶은 달걀 5개에 각각 적는다.
- 나머지 달걀에는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비속어나 욕설 등 나쁜 말을 적는다.

■ 준비물 : 종이, 사인펜, 삶은 달걀(또는 풍선)

■ 유의사항

- 고운 말을 적은 5개의 달걀은 참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꾸며도 좋다.
- 삶은 달걀을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 풍선을 인원수만큼 준비하여 풍선 속에 나쁜 말과 고운 말을 적은 쪽지를 넣고 풍선을 터뜨려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도 된다.

전개 20분

■ 내용 : 암탉 지키기 닭싸움

- 암탉 지키기 닭싸움으로 고운 말 달걀 뺏기
- 암탉 지키기 닭싸움은 두 모둠이 각각 정해 놓은 5명의 암탉을 먼저 쓰러뜨려서 암탉이 갖고 있는 5개의 고운 말 달걀을 뺏어 오면 이기는 활동

■ 진행방법

- 각 모둠별로 5명의 암탉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탉이라 명한다.
- 5명의 암탉은 고운 말 달걀을, 나머지 수탉인 친구들은 나쁜 말 달걀을 상대방이 잘 안 보이도록 하나씩 손에 쥔다.
- 누가 고운 말 달걀을 갖고 있는 암탉인지, 나쁜 말 달걀을 갖고 있는 수탉인지 상대방이 모르도록 전략을 잘 짜도록 지도한다.
- 지도 교사가 제한 시간을 주고 시작을 외치면, 상대방의 닭들을 공격하여 갖고 있는 달걀을 뺏으면 된다.
- 제한 시간 동안 5개의 고운 말 달걀을 모두 뺏어온 팀이 우승한다.

■ 유의사항

- 시작하기 전 의자나 책상을 치워 놓고 넓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서 우리가 평소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과, 사용하는 나쁜 말들을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거나 듣고 싶은 고운 말을 암탉지키기 닭싸움을 통해 가져와 보았는데 각 모둠에서는 상대의 어떤 고운 말을 뺏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각 모둠별로 뺏어 온 나쁜 말과 고운 말 달걀에 적힌 말들을 발표해 본다)
각 모둠별로 발표해 준 말들이 여러분이 듣고 싶던 따뜻한 말들인가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여러분은 갈등 상황 때문에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비속어나 욕설, 은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기분 나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고운 말을 먼저 친구에게 들려주면 친구도 여러분에게 고운 말을 해 주지 않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정리 10분

- 내용 : 암탉 지키기 닭싸움
 - 활동 소감 발표 및 삶은 달걀 나누어 먹기
- 진행방법
 - 각 모둠별 대표 1~2명이 활동 소감을 발표해 본다.
 - 활동에 활용했던 삶은 달걀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각 팀별로 어떤 고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발표를 들어 본 뒤).
 자, 이렇게 좋은 말, 고운 말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약간은 낯간지럽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 들진 않나요? 여러분이 느낀 긍정적인 경험을 오늘 함께하지 못한 다른 친구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오늘 나온 고운 말들을 친구들에게 전해 봅시다.
친구들과 고운 말, 예쁜 말, 그리고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활동 목표

- 영화 속 언어폭력과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청소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 교사 3~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영상 자료, 노트북, 영상투사기(빔), 스크린, 필기도구
- 주요 내용
 - 욕설이 나오는 영화 속 장면 순회해 보기
 - 순회한 영화 속 장면 역할극으로 꾸며 보기
- 유의 사항
 - 역할극 진행 시 장난스럽게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영화 선정 시 사전에 참가 청소년들과 논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소개 및 설명	10분	
전개	· 바꿔! 영화 속 그 장면 · 영화 속 주인공처럼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 내용 및 과정 설명

- 청소년 언어 문제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미디어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고 활동에 대해 안내

여러분이 사용하는 나쁜 말들을 여러분은 어디서 배웠나요?

친구? 가족? 주변 어른들? 아마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주 보는 영화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12세나 15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나는 영화들이 많지요? 영화 속 욕설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거나 ‘현실의 반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욕설을 사용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 관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다)

전개 10분

■ 내용 : 바꿔! 영화 속 그 장면

- 욕설이 나오는 영화 속 장면 순화해 보기

■ 진행방법

- 욕설이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 준다. 영상은 5분 내외로 짧은 것으로 선택하되 참가 청소년의 연령과 욕구를 고려하여 두 가지 정도 준비한다.
- 영화를 본 뒤 모둠별로 영화 속 대사를 순화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준비물 : A4 종이, 펜

■ 유의 사항

- 가능하다면 영화 각 장면의 대사를 사전에 프린트하여 준비한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영상 속 주인공의 대사를 적어 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욕설을 고운 말로 순화해 보도록 합니다.

전개 20분

■ 내용 : 영화 속 주인공처럼

- 순회된 영화 속 장면 역할극으로 꾸며 보기

■ 진행방법

- 모둠원들끼리 앞서 순회해 본 영화 속 장면의 역할을 정하고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본다.
- 두 가지 영화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역할극을 선보인다.
- 각 모둠별로 역할극은 순회되기 전의 장면과 순회한 후의 장면 두 가지 모두 해 본다.
- 각 모둠별로 역할극을 진행한 후 다 같이 박수로 칭찬해 주고 역할극을 본 느낌을 발표해 본다.

■ 유의 사항

- 역할극을 직접 해 본 친구들과 바라본 친구들이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서로의 연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유도한다.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 활동 소감 발표 및 작품 평가하기

■ 진행방법

- 각 모둠별 대표 1~2명이 활동 소감을 발표해 본다.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역할극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꾸민 방식으로 영화를 바꿔 본다면 어떨까요?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상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은 부분만 진행해 보았는데, 어떠했나요?

강렬한 대사들이 순화되면서 마음에 가깝게 와 닿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인 대사가 아닌 고운 말, 바른 말로 표현하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도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미디어를 접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그 말이나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 보고 바른 표현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활동 자료

■ 영화 바꿔보기 예시 영화

영화 대본 예시 (영화 18'33" ~ 20'11" 부분)

기찻길 폐역사에서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

(기태, 동윤은 교복을 입은 채 폐역사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고 있고
맞은편 선로 위에 서 있는 희준)

기태: 보경이가 그렇게 좋냐?

희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동윤: 뭐가 또 아니야. 이 새끼, 계속 아니래.

기태: 이번 주에 월미도나 갈래? 다같이?

보경이하고 개 친구들도 같이.

동윤: 좋지! 가자가자!

기태: 베키, 어때?

희준: 가던가.

기태: 미친 새끼, 존나 태연한 척 하네.

희준: 티 나나?

기태: 티 존나 나, 병신야! 으이그~ (희준에게 헤드락을 거는 기태. 희준은 엄살 부리며 아프다고 외친다.)

동윤: 야, 세정이도 오겠지?

기태: 몇 번을 얘기해! 세정이도 올 거라고. 보니까 너 존나 이상하다?

동윤: 뭐가, 새끼야?

기태: 네 욕심 채우려고 가지는 거 아니야?

동윤: 아니야, 임마! 뭐니 뭐니 해도 베키를 위해서지.

희준: 웃기지마! 너 세정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

동윤: 뭐, 나랑 세정이랑 잘 되도 나쁠 거 없잖아.

기태: 이 새끼, 이제 본심을 드러내네.



영화 <파수꾼>

장르 : 드라마 / 15세 관람가

상영시간 : 117분

개봉일 : 2011년 3월 개봉

*출처 : 네이버 영화 정보

활동 목표

- 내가 듣고 싶거나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고운 말들을 시각화할 수 있다.
- 긍정적인 언어 경험을 통해 참여 청소년의 마음을 순화할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 (보조 교사 3~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투명 비닐 (아스테이지), 솜 (혹은 신문지), 가위, 종이 찢개 (스테이플러), 매직, 작품 평가용 스티커, 카드

■ 주요 내용

- 투명 비닐에 내가 듣고 싶거나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고운 말들 적어 베개로 만들기
- 친구에게 고운 말 카드 쓰기

■ 유의 사항

- 흰 솜을 사용하면 비닐에 적은 글귀가 잘 보여 좋으나 많은 양의 솜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신문지나 이면지를 활용해도 좋고, 크기를 작게 하여 휴대 전화용 장식품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 사전에 예시 작품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소개 및 설명	10분	
전개	· 투명 비닐로 만드는 고운 말 베개 · 친구에게 고운 말 카드 쓰기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10분	

* 본 예시는 지도 교사의 프로그램 진행을 돋기 위해 제시한 시나리오로서, 영화의 일부를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도입 5분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 내용 및 과정 설명

- 활동 소개 및 친구, 선생님,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나누기

■ 진행방법

-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께 듣고 싶은 따뜻한 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발표해 본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따뜻한 말, 예쁜 말들을 투명 비닐에 적어 베개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만든 베개는 여러분이 가져도 좋고 친구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개 30분

■ 내용 : 투명 비닐로 만드는 고운 말 베개

■ 진행방법

- 개인별로 투명 비닐과 가위, 매직, 솜, 종이 찢개와 심 등을 준비한다.
- 우선 투명 비닐에 만들고 싶은 모양의 베개를 그리고 앞뒤 두 장이 되도록 재단한다(하트, 동물 모양, 사탕 모양 등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크기도 자유롭게 결정한다).
- 재단한 투명 비닐에 따뜻한 말, 예쁜 말들을 적는다.
- 이때, 모둠원들이 서로 적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다.
- 비닐의 테두리를 종이 찢개로 촘촘히 찢어 주면서 속에 솜을 채워 완성한다.
- 완성되면 준비된 카드에 고운 말로 카드 쓰는 시간을 갖는다.

■ 준비물 : 투명 비닐, 매직, 솜, 종이 찢개, 종이 찢개 심, 가위, 카드, 필기도구

■ 유의사항

- 테두리에 여유를 남기지 않고 종이 찢개를 찢으면 쉽게 찢어질 수 있으니 유의한다.
- 솜을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 신문지나 기타 재활용 종이 등으로 채워도 된다.

앞에 놓인 투명 비닐을 이용해서 베개의 앞판과 뒤판을 만듭니다. 모양과 크기는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재단한 뒤 투명 비닐에 따뜻한 말, 예쁜 말들을 적습니다. 그림을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종이 찢개로 테두리를 박으며 속을 채웁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고운 마음을 담아 속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세요.

■ 내용 : 활동 소감 발표 및 작품 평가하기

■ 진행방법

- 완성된 작품은 활동실 및 교실 앞쪽이나 벽면에 게시해 놓는다.
- 각 모둠별로 소감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 가장 잘 완성한 모둠을 뽑아 본다.

■ 준비물 : 작품 평가 스티커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 베고 잘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베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힘이 되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변 친구 카드와 함께 선물하면 좋겠지요?
나눠 드린 스티커를 들고 나와서 다른 모둠의 작품 중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 줍시다.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은 모둠이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자료



① 개인별 재료를 준비한다.



② 투명 비닐 두장을 겹쳐서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한다.



③ 투명 비닐 위에 매직으로 글을 쓴다.



④ 투명 비닐 두 장의 테두리를 끝에 솜을 넣을 부분을 조금 남겨 놓고 종이 찍개로 꼼꼼히 찍어 준다.



⑤ 솜으로 속을 채워 넣는다.



⑥ 남겨 놓은 부분을 마저 종이 찍개로 찍어서 마무리하면 완성.

예쁜 말 베개 제작 과정

활동 목표

- 바른 말 사용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 자신들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바른 말 사용을 생활화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고등학생 30명 내외

■ 진행인원 : 지도 교사 1명(보조 교사 3~5명)

■ 소요시간 : 50분

■ 장 소 : 수련 시설 활동실 혹은 학교 교실

■ 준비물 : 우드락 혹은 색도화지(4절 사이즈), 사인펜, 도화지

■ 주요 내용

- 개선해야 할 나쁜 말 다섯 가지를 선별하여 순위 만들어 보기
- 도화지에 손바닥 그림을 그리고 각 손가락마다 자신의 다짐 적기

■ 유의 사항

- 만든 표나 그림은 이번 차시로 끝나지 않고, 활동실이나 학급 내에 게시하여 하나의 자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모둠명이나 모둠원의 이름을 꼭 적는다.
- 지속 가능한 다짐과 약속을 정하여 실제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과정 개요

단계	구분	시간	비고
도입	· 활동 소개 및 설명	10분	
전개	·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나쁜 말 5가지 · 다섯 손가락에 새기는 나의 다짐	30분	
정리	· 활동 내용 정리	10분	

도입 10분

활동 내용

■ 내용 : 활동 내용 및 과정 설명

- 활동 소개 및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말들이 무엇인지 나누기

■ 진행방법

- 간단한 활동 소개 후 앞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여러분이 언어 습관 개선을 위해 여러 차시 활동하면서 느낀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꼭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짐해 보는 시간입니다.

전개 10분

■ 내용 :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나쁜 말 5가지

-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말 순위 만들어 보기

■ 진행방법

- 모둠별로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말들의 순위를 정해 본다.
- 정한 순위를 우드락(또는 4절 색도화지)에 표로 그려 본다.
- 각 모둠별로 어떤 순위가 나왔는지 발표해 보고 하나의 순위로 합쳐 보기도 한다.

■ 준비물 : 우드락 또는 색도화지(4절 사이즈), 사인펜

■ 유의사항

- 만든 표를 활동실이나 학급 내에 게시하여 하나의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잘 보이도록 표로 만들어 보고 모둠원의 이름을 꼭 적도록 한다.

각 모둠별로 나온 순위를 보았습니다. 모둠별로 매긴 순위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하니 우리의 전체 순위는 이렇게(앞에서
지도 교사가 총 순위를 정리함)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순위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20분

■ 내용 : 다섯 손가락에 새기는 나의 다짐

- 도화지에 손바닥 그림을 그리고 각 손가락마다 정한 자신의 다짐 적기

■ 진행방법

-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도화지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따라 그린다.
- 손바닥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의 다짐 손'이라고 적는다.
- 자신의 손가락 부분에는 손가락 위치마다 다음의 내용을 담은 약속을 적도록 한다.

엄지: 앞으로 내가 으뜸으로 지킬 약속

검지: 친구의 잘못을 지나치지 않고 알려 주는 약속

중지: 앞으로 내가 절대 하지 않을 나쁜 말을 약속

약지: 앞으로 내가 항상 할 따뜻한 말을 약속

소지: 이 약속을 하는 나의 마음은?

- 완성된 손 그림은 활동실이나 학급에 게시하여도 되고 개인이 소장해도 좋다. 또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책의 앞표지에 붙여 놓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준비물 : 도화지, 사인펜

■ 유의사항

- 진지한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자신만의 다짐을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는 여러분 각자 개인의 다짐을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키풀 때 다섯 손가락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 아시죠?

우리도 다섯 손가락마다 각기 다른 의미의 다짐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엄지에는 내가 앞으로 으뜸으로 지킬 약속, 검지에는 친구가 나쁜 말을 사용하였을 때 지나치지 않고 알려주겠단 약속, 중지는 내가 앞으로 절대 하지 않을 나쁜 말을 약속하고, 약지에는 내가 앞으로 자주 할 따뜻한 말을 약속하며, 소지에는 이 약속을 하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적어 봅니다.

정리 10분

- 내용 : 활동 내용 정리
 - 활동 소감 발표
- 진행방법
 - 완성된 작품은 활동실이나 교실 앞쪽 또는 벽면에 게시해 놓는다.
 - 각 모둠별로 소감을 발표한다. 마무리하는 시간인 만큼 자신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다짐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본다.

여러분 스스로 지킬 약속과 주변 친구들과의 언어 개선을 위해 할 노력을 다섯 손가락을 걸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다짐을 하셨나요?(각 모둠별로 발표를 들어본 후)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이 됩니다. 공휴일은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날이어야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것은 백성들과 소통하겠다는 애민사상(愛民思想)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념 속에 탄생한 우리말과 글이 현실에서 얼마나 훼손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청소년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시를 통해 느낀 것들을 잘 기억하여 지금 했던 다짐이 앞으로도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활동 자료



작품 예시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초등학교

■ 언어문화개선 사업 '윗물·아랫물 활동' (인천 작전초등학교)

- 욕을 하는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비폭력 대화의 솔선수범을 보이자는 계획으로 '사랑의 언어 주간' 운영. '맑은 윗물이 되자'는 뜻에서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것으로 꼽은 말들을 적어 전체 교사가 교문 앞에 서서 인사하기 외에도 '사랑의 텃밭 가꾸기 수업' 등 운영. 도장이나 스티커를 받길 좋아하는 저학년은 캐릭터 인형, 마파로 바른말 어린이를 인증해주고, 고학년은 UCC 제작 등을 하며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접근함.

| 출처 | 한국일보 2012. 5. 19.

■ 언어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영동 횡간초등학교)

- 나쁜 말 버리기 운동, 바른 말 사용 모범어린이 선발대회, 학생과 교사 간 상호 안아주는 Free Hug 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언어문화 개선 연구학교에 선정돼 바른 말 사용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의 형성을 위해 스마일 운동을 실천하고 있음.

| 출처 | 충북일보 2012. 6. 21.

■ '多 행복한 학교' (충북도교육청)

-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운동 전개 (청주 서촌초등학교)
연초 학급별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고미사(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King' 코너를 만들고 칭찬 스티커 제도 도입. 방송사의 바른말 고운 말 프로그램을 녹화해 매일 일과 시작 전후 학생과 교직원이 다함께 시청하며 올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짐.
- 행복을 전달하는 말 씨앗 캠페인 (청주 금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자주 쓰는 부정적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정한 뒤 언어생활기록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말 씨앗이 자라기와 열매 맺기 과정을 거쳐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나의 말 씨앗 심기'. 이 달을 빛낼 말 한마디나 이 주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시 읽기 등으로 이뤄진 '말 씨앗 캠페인'을 진행함.
- 친구사랑 빨간 우체통 운영 (영동 영동초등학교)
사랑, 효, 우정, 감사 등을 주제로 편지를 쓴 뒤 매달 2회에 걸쳐 편지를 배달하는 편지쓰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 친구와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함.

| 출처 | 중부매일 2012. 6. 28.

■ 감사 나눔 캠페인 '고맙데이'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외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학교들)

- 감사 나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 나눔을 기록하도록 노트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 식물에게 감사하는 말을 들려주는 경우와 욕설을 뱉는 경우를 비교해 성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하는 관찰학습 프로그램도 마련함.

| 출처 | 동아일보 2012. 7. 20.

■ (사)이미지컨설턴트협회의 '인성스타트' (서울 윤중초등학교)

- 도덕수업을 통해 전교생 대상 프로그램 실시. 인간의 존엄성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인드 교육을 기초로 대화, 표정, 인사, 복장, 전화, 안내, 좌석, 식탁, 방문, 자동차, 엘리베이터, 공연장 예절까지 몸으로 직접 익히는 예절 교육 실시.
친구의 외모를 놀리지 않고 칭찬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상대존중하기), 친구 도와주기와 양보 및 공공질서 지키기(배려), 긍정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함으로써 언어폭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고운 말 하기) 등이 인성스타트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수단이라고 함.

| 출처 | 국민일보 2012. 7. 21.

■ 공감대화교과연구회 (부산 대저초등학교 정난숙 교사)

- 인성교육의 일확인 비폭력대화라는 영역에 관심이 높았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2009년부터 공감대화를 공부해 오던 것이 지난 4월 부산시교육청의 교과연구회 공모사업에 선정.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짐. 학교의 교육활동은 결국 언어활동이라고 인식하고 학생들이 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 공부해 보니 그 뿐리에 폭력적 언어가 있더라도 공감대를 갖게 됨.
공감대화교과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초·중·고교에 걸쳐 각급 학교별로 3개씩 모두 9개 모임이 활동을 펼쳐 왔으며 10월 19일에는 이들 9개 모임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그간 조사한 학교현장의 폭력과 욕설 현황, 공감대화를 적용한 사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 등을 토의했으며 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리된 현황과 사례 및 교육법을 다음 달 중 책으로 엮어 펴내 교육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함.

| 출처 | 국제신문 2012. 10. 18.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 바르고 고운 말 사용 캠페인 (대전 월랑초등학교)

- 언어문화개선동아리 '달사랑 말사랑'은 지난 3주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언어온도계를 만들어 측정, 학생들이 생활에서 무심코 쓰는 말 중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아서 언어온도계를 각각 올려 봄으로써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자각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둠.

학생언어 사용 실태의 심각성을 학생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고운 말 작품 공모, 고운 말 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침.

| 출처 | 중도일보 2012. 11. 27.

■ 용원 선풀단 운영 학교폭력 ZERO (충주 용원초등학교)

- 습관화되어 버린 욕 문화를 개선하고자 언어생활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바른 언어사용 선서식, 바른말 지킴이 운영, 언어생활 메니페스토 발표대회, 용원 선풀단을 운영. 특히,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존댓말 사용 활동, 긍정의 말과 사랑의 말 실천 활동, 월별 구호인사말 정하기를 실시하고 언어 생활본에 기록하여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언어 정화의 날'을 지정하여 잘못 사용한 말, 욕설, 비속어 등을 적어 정화함에 버리도록 하여 바른말 사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짐.

| 출처 | 중부매일 2012. 11. 28.

■ 친구사랑 문예행사 (충남 당진 계성초등학교 강소영 교사)

- 바른 언어 캐릭터 그리기, 바른 말 권장 표어 만들기, 우리 말 부채 만들기, 우리 말 문자 디자인 등 다양한 학교 행사로 바른 언어생활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에 노력함.

|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실천대회 자료집」

■ '청운청언(淸雲淸言)' (충북 청운중학교 문수미 교사)

- 학생들이 올바르고 예쁜 말을 사용하도록 해 언어·행동 폭력을 추방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자는 취지로 언어생활 반성수첩 제작·배포, 매달 11일을 '세움의 날'로 정해 사제 간은 물론 친구 사이에서도 높임말을 쓰도록 권장, 세움의 날에는 '행복한 학교'라는 배지를 제작 및 부착. 한글날에는 비속어를 쓰지 않는 엽서 쓰기 대회를 진행함.

| 출처 | 중앙일보 2012. 1. 12.

■ '자기 관리 플래너'등 다양한 언어 개선 활동 (서울 상원중학교)

- 학생들은 매일 아침 10분간 학습 계획도 있지만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보는 '자기 관리 플래너(계획서)'작성.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계획서에 기록하게 해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하는 취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우리말 급훈'제작, TV방송국 아나운서를 초청한 올바른 국어사용 강연, '한글 사랑 UCC'대회 개최. 이 외에도 문화 활동으로 정서를 가꿔주기 위해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을 강화, 사회 수업에서는 '욕설을 하는 심리'에 대해 토론을 하고, 정보 시간에는 '잘못된 통신 언어'와 '네티켓'에 대해 알아보기, 욕의 뜻을 풀이한 학습지를 나눠주고 교사가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해 '욕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는 수업 등을 진행함.

| 출처 | 경향신문 2012. 5. 1.

■ 욕설문화 고치는 '너나들이'동아리 (서울 경희중학교 강용철 교사)

- 너나들이는 '바른말 고운 말 지킴이가 되자'는 뜻으로 동아리 학생들의 치열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욕설 뜻풀이 사전 발간', '바른말 고운 말 강령 제작', '순 우리말 사전 제작', '욕의 어원을 담은 포스터 게시', '욕쟁이에게 역지사지를 느끼게 할 역할극 대본 쓰기', '대중가요를 순 우리말로 개사해 관심 끌기', '부모님 경고 카드제'등 다양한 교내 캠페인 활동을 직접 진행하는 자치활동 펼침. 교사의 제안이 모임의 단초가 됐지만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됨.

| 출처 | 한국일보 2012. 5. 19.

중학교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 고.바.우 프로그램 (부산 기장중학교 이명섭 교사)

- 매월 1일은 고운 말 쓰는 날, 매월 15일은 바른 말 쓰는 날, 매월 30일은 우리 말 쓰는 날로 지정하여 고.바.우 스티커 제작 및 활용, 학습 플래너 언어생활 점검표 작성, 교사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심리극 관람 및 아침 방송, 외래강사 초청 특강, 학부모 연수 등 노력. 특히 교과, 인성 10대 덕목,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함.

|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실천대회 자료집」

■ 언어지킴이 X맨을 활용한 핑크 배지 (경기 가온중학교 김미영 교사)

- 2주일에 한번씩 남녀 X맨 각각 1명을 선정. 고운 말 사용자와 불량언어(욕, 비속어) 사용자 점검 후 고운 말 3회 이상 사용자는 핑크 배지와 상점 1점을, 불량언어 3회 이상 사용자는 블루 배지를 착용. 그 외 청소년 분노조절 프로그램과 맡은 나이 향기 워크숍, 명심보감 쓰기 지도 등 노력함.

|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실천대회 자료집」

■ 언어문화개선을 주제로 여는 학급 공개의 날 (경북 영천여자중학교 김정희 교사)

- 매 학기마다 기말고사 후 언어문화를 개선하자는 주제로 학급별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급을 공개하고 학부모를 초청하는 행사 진행. 패션쇼로 풀어보는 언어문화 개선, 고운 말 사용으로 좋은 관계 쌓기,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연극으로 재연, 사라져 가는 우리 방언의 소중함을 알자 등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프로그램을 준비, 운영함.

|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실천대회 자료집」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특강 (충주 중산고등학교)

-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21일 충주 KBS 원순식 아나운서를 초청,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특강'을 실시. 학생들에게 청소년이 자주 쓰는 비속어와 은어, 욕설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함. 중산고는 이처럼 형식뿐인 우리말 교육이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고운 말 쓰기를 생활화함으로써 생활 전반에서 바른말 쓰는 습관이 익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 출처 | 충북일보 2012. 9. 24

■ 한글날 '매직파포먼스 페스티벌' (충남예술고등학교)

- 충남예고 학생회 학생들이 한글 사랑, 바른말 사용, 언어 폭력 예방 등 발표회를 통해 한글의 중요성을 홍보함.

| 출처 | 대전일보 2012. 10. 10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송설 토론회 (경북 김천고등학교 박재경 교사)

-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 진행. 대회에 참가하는 2학년 전체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활용해 기본적인 토론회 진행방식을 사전에 학습 후 2학년 각 반에서는 위의 주제로 토론을 거친 후 반별 대표 학생 3명을 선발, 각 반 대표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일과 후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전을 실시. 심사는 교내 토론동아리 '송설브라더스' 3학년 학생들이 진행하여 전교생이 참석하는 결승전 실시. 학생 언어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음.

|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실천대회 자료집」

■ 시(詩)로 여는 아침 (인천 예일고등학교 양대광 교사)

- 아침 등교 시 교직 위반 학생을 대상으로 별칭 대신 시를 외우도록 하여 정서를 순화함. 등교 시의 위압적인 분위기 개선에 효과가 있고 교직 위반 학생들의 시에 대한 태도가 유연해지며 학생들이 다수의 시를 암송하게 됨.

|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실천대회 자료집」

고등학교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 숲길 힐링 체험을 통한 정서 및 언어 순화 (창원 응천고등학교 우진영 선생님)

- 학교생활에서 불건전한 언어사용으로 지적받은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한 달에 2회 토요일 오전을 활용한 자연 친화활동 실시.

|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2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실천대회 자료집」

■ '수업머리 인성교육', '선플달기 운동' 등 (울산시 교육청)

- 지난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요를 부르거나 생활예절교육을 하는 수업머리 인성교육을 시작했고, 7월부터는 인터넷에 악플 대신 선물을 다는 운동을 본격화.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각종 리플릿과 동영상 파일, 훈화용 파일을 학교에 보급하고 인성교육용 훈화집도 제작해 배포했으며 각 학교는 학생들에게 '나를 가꾸는 인성노트' 를 매일 기록하도록 해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뒷받침해 줌. 울산 인터넷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로 매 수업을 시작하고, 삼정초등학교는 매일 아침 친구·가족사랑 등을 주제로 한 동요를 선정해 전교생이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며 이화중학교는 한글주간 운영, 언어습관 개선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

■ 언어 순화 캠페인 (수서청소년수련관 '리에볼로'팀)

- 영어에 재능이 있는 수서 지역 청소년 13명이 모여 만든 재능 나눔 동아리로 외래어 사용과 관련된 인식개선 활동 진행. 오역된 표지판과 안내문을 수정하고, 외래어 오·남용 사례를 알리는 언어 순화 캠페인을 펼침.

| 출처 | 내일신문 2012. 11. 7.

기타 사례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기획

김선철 (공공언어지원단 학예연구관)

박주화 (공공언어지원단 학예연구사)

프로그램 개발

구자윤 (표현예술치료학 전공)

김경은 (미디어교육 전공)

김나은 (심리학 전공)

전화영 (청소년지도학 전공)

국립국어원

2012-01-49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432-01

인쇄일

2012년 12월 21일

발행일

2012년 12월 28일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 2669. 9722, 전송 02. 2669. 9727

편집·디자인

주) 케이에스센세이션

전화 02. 761. 0031, 전송 02. 761. 2727